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 연구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조 소 현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 연구

지도교수 최 현 자

이 논문을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조 소 현

조소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급격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의 빠른 진행 등 인구학적인 변화, 국민연금의 재정악화로 인한 연금 개혁 가능성 그리고 고용 불안정성 등으로 은퇴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음에도 사회초년생들은 은퇴준비를 시급하게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정기적인 금전소득을 얻게 됨에 따라 경제적 독립을 시작한 청년세대인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를 위한 연구도 필요하나 기존의 은퇴준비 관련 연구는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이나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재무적 영역에 국한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은퇴준비를 은퇴생활의 관점에서 삶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회초년생들의 은퇴준비 현황과 은퇴준비 관련 인식 및 역량을 살펴보고 이들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은퇴준비의 영역을 여가 및 취미활동, 일 및 사회활동, 사회관계, 주거환경, 마음의 안정, 재무, 건강 등으로 나누어 각 은퇴준비 영역별로 은퇴준비 인식, 역량, 실태를 살펴보며, 인식과 역량이 영역별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에서는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가 어떠한지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필요성, 중요성), 역량(지식, 태도, 기능), 영역별 실태를 살펴보고, [연구문제 2]에서는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라 은퇴준비 인식, 역량, 실태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3]에서는 은퇴준비 영역별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 역량, 인식 및 실태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취업한 지 5년 이내에 현재 월소득이 있는 20 ~ 30대 사회초년생 5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초년생은 은퇴준비를 향후 5년 이내로 할 것이라고 연기하

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30대 이후로 은퇴준비를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모든 은퇴준비 영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은퇴준비 영역별로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응답에서는 건강, 재무, 주거환경 등 재무적인 은퇴준비와 관련이 깊은 영역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였으며 편차도 낮게 나타났다. 은퇴준비에 필요한 역량의 수준은 지식, 기능, 태도 순이었으며, 영역별 은퇴준비 실태의 경우 건강과 재무적 영역에서 은퇴준비를 하고 있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환경 영역의 경우 은퇴준비를 하고 있는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다른 영역에 비해 편차도 가장 커 은퇴준비 인식에 비해 사회초년생 간 실제 준비에서 차이가 큼을 시사하였다.

둘째, 사회초년생의 특성(성별, 연령, 직업, 학력, 월평균 소득, 예상 은퇴시점)에 따라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 인식, 역량, 실태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성별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일수록, 학력이 높은 집단에 비해 낮은 집단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은퇴준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 수준은 높은 반면 은퇴준비 기능의 역량과 은퇴준비를 실제로 하고 있는 수준이 낮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셋째, 응답자의 영역별 은퇴준비 실태와 은퇴준비 역량 및 영역별 인식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경제적 영역(일 및 사회활동, 사회관계, 재무), 넓은 의미의 건강 영역(여가 및 취미활동, 마음의 안정, 건강), 그리고 주거환경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은퇴준비 역량을 기준으로 볼 때, 은퇴준비 지식은 지각된 중요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은퇴준비 기능은 은퇴준비 실태에 영향을 미치고 은퇴준비 태도는 영역별로 상이한 영향을 보였다. 은퇴준비 영역별로 은퇴준비의 현황과 인식 및 역량과의 관계가 상이하였으며, 은퇴준비 역량에 따라서 은퇴준비 영역별 지각된 중요성과 실제 은퇴준비 수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각된 중요성이 미치는 영향 또한 상이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은퇴준비 영역별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 은퇴준비 역량 및 영역별 은퇴준비 실태와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은퇴준비 영역별로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하였으나 대체로 지각된 중요성이 실제 은퇴준비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 응답한 사회초년생들은 대체로 재무적 영역에 집중하여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은퇴준비가 재무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종합적인 영역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특히 사회초년생이 현실적으로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큰 주거환경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지각된 중요성이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를 돕기 위해서는 영역별로 상이한 접근이 필요하며, 은퇴준비 지식, 태도, 기능의 역량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은퇴준비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대해 한정적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 인구통계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에 대해 보다 풍부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은퇴준비 실태의 경우 은퇴준비 영역별로 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은퇴준비 영역별 실태를 심층적이고 다양한 척도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은퇴준비 역량의 척도가 재무적 역량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은퇴준비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역량을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재무적 영역의 은퇴준비 인식과 실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은퇴준비 영역간 전이효과(spillover effect)의 가능성을 확인하여 은퇴준비 영역간 은퇴준비의 성격은 다르지만 상호영향이 가능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주요어 : 은퇴, 은퇴준비, 사회초년생, 인식, 역량, 실태
학 번 : 2021-20747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문제제기 ·····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5
제 1 절 은퇴와 은퇴준비 영역 ····· 5
제 2 절 은퇴준비 실태에 관한 연구 ····· 10
제 3 절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13
제 4 절 사회초년생 ····· 19

제 3 장 연구방법 ····· 22
제 1 절 연구설계 ····· 22
1. 연구문제 ····· 22
2. 연구모형 ····· 23
3. 연구방법 ····· 24
제 2 절 설문 및 척도의 구성 ····· 25
1. 설문의 구성 ····· 25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척도의 구성 ····· 27
제 3 절 응답자 특성 ····· 33

제 4 장 연구결과 ····· 34
제 1 절 은퇴준비 영역별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 실태 ··· 34
1.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 인식 ····· 34

2.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 역량 ····· 38
3.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 실태 ····· 40
4. 소결 ····· 44
제 2 절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의 차이 ····· 46
1.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 인식의 차이 ····· 46
2.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 역량의 차이 ····· 52
3.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 실태의 차이 ····· 54
4. 소결 ····· 56
제 3 절 은퇴준비 영역별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 역량, 인식 및 실태 간의 관계 ····· 57
1. 여가 및 취미활동 영역 ····· 58
2. 일 및 사회활동 영역 ····· 60
3. 사회관계 영역 ····· 62
4. 주거환경 영역 ····· 64
5. 마음의 안정 영역 ····· 66
6. 재무 영역 ····· 68
7. 건강 영역 ····· 70
8. 소결 ····· 72

제 5 장 결 론 ····· 75
제 1 절 요약 ····· 75
제 2 절 결론 및 제언 ····· 78

참고문헌 ····· 82
[부록] 설문지 ····· 90
Abstract ····· 99

표 목 차

[표 2-1] 은퇴준비지수 하위영역(RAINBOW)별 구성요소 ····· 6
[표 2-2] 종합적인 은퇴준비 영역에 대한 선행연구 ····· 8
[표 2-3] 은퇴준비 실태 관련 선행연구 ····· 12
[표 2-4] 은퇴준비 영향요인 관련 선행연구 ····· 18
[표 3-1] 설문의 구성 ····· 26
[표 3-2] 은퇴준비 인식 측정문항 ····· 28
[표 3-3] 은퇴준비 역량 측정문항 ····· 29
[표 3-4] 은퇴준비 실태 측정문항 ····· 31
[표 3-5] 사회초년생의 특성 ····· 33
[표 4-1] 예상 은퇴준비시점 ····· 35
[표 4-2] 은퇴준비 영역별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 ····· 35
[표 4-3] 은퇴준비 영역별 필요성 인식에 따른 예상 은퇴준비시점 ···· 36
[표 4-4] 은퇴준비역량 결과 ····· 38
[표 4-5] 응답자의 은퇴준비 역량 백분위 표준점수 ····· 39
[표 4-6] 은퇴준비 영역별 은퇴준비 실태 ····· 40
[표 4-7] 재무 및 건강 영역 은퇴준비 실태 ····· 43
[표 4-8]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른 예상 은퇴준비시점의 차이 ····· 47
[표 4-9]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 영역별 필요성 인식 차이 ····· 49
[표 4-10]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 영역별 중요성 인식 차이 ····· 51
[표 4-11]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 역량의 차이 ····· 53
[표 4-12]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 실태의 차이 ····· 55
[표 4-13] 여가 및 취미활동 영역 은퇴준비의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 59
[표 4-14] 일 및 사회활동 영역 은퇴준비의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 61

[표 4-15] 사회관계 영역 은퇴준비의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 63
[표 4-16] 주거환경 영역 은퇴준비의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 65
[표 4-17] 마음의 안정 영역 은퇴준비의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 67
[표 4-18] 재무 영역 은퇴준비의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 69
[표 4-19] 건강 영역 은퇴준비의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 71
[표 4-20] 은퇴준비 영역별 직·간접효과 요약 ····· 74

그 림 목 차

[그림 3-1] 연구모형 ····· 24
[그림 4-1] 은퇴소득원 ····· 43
[그림 4-2] 여가 및 취미활동 영역 은퇴준비의 경로분석 결과 ····· 59
[그림 4-3] 일 및 사회활동 영역 은퇴준비의 경로분석 결과 ····· 61
[그림 4-4] 사회관계 영역 은퇴준비의 경로분석 결과 ····· 63
[그림 4-5] 주거환경 영역 은퇴준비의 경로분석 결과 ····· 65
[그림 4-6] 마음의 안정 영역 은퇴준비의 경로분석 결과 ····· 67
[그림 4-7] 재무 영역 은퇴준비의 경로분석 결과 ····· 69
[그림 4-8] 건강 영역 은퇴준비의 경로분석 결과 ····· 7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급격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인구학적인 변화, 연금 개혁 가능성 그리고 고용 불안정성 등으로 은퇴 후 불안정한 생활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사회초년생들은 은퇴를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퇴 준비를 시급하게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험연구원의 최근 보고서(2021)에 따르면 사회초년생에 해당하는 2030세대의 상당수가 은퇴 후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30세대들은 은퇴준비의 필요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인식하고 있음에도 계획이나 실행을 미루는 경향이 있었다. 국외의 경우 부모자녀간 은퇴후 생활에 대한 의존이 낮다는 인식이 있으나, 최근 노인인구가 증가하며 연령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노인부양률(15 ~ 64세의 생산가능인구 대비 고령층 인구 비율)이 증가해 국외 또한 은퇴한 노인인구의 부양부담이 사회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별적인 은퇴준비가 어려워지는 추세이다(Gupta & Wong, 2020). 이처럼 환경의 급진적인 변화에 자녀세대들의 부모의존도가 증가하며 청년세대의 은퇴준비 문제 또한 국제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실정이다(Schneider, 2010).

성공적인 은퇴를 위해서는 은퇴이전과 비교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 측면 전반에서 지속적인 생활의 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은퇴라는 사건의 발생과 은퇴가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계산하여 합리적으로 대비하는 은퇴설계의 중요성이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출산율 저하, 고령화의 빠른 진행, 국민연금의 재정악화, 유연하지 않은 노동시장 그리고 부모부양의식 약화 등의 이유로 스스로 자신의 은퇴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가 점점 더 앞당겨지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2023)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어 합계출산율이 2000년 1.48, 2010년 1.23, 2022년 0.78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며,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18

년만인 2018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그로부터 8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2023)는 저출산·고령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쳐 기금 소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현행 국민연금 제도 유지 시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아지는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이면 기금이 소진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의식적 측면의 변화와도 연결되어 은퇴준비의 필요성을 더욱 앞당기게 된다. 통계청(2020) 자료에 따르면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에 관해 가족이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는 2012년 33.2%에서 2020년 22%로 하락하는 추세인 반면, 가족, 정부, 사회가 공동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견해는 2012년 48.7%에서 2020년 61.6%로 상승하였다. 실제로 부모를 부양할 자녀의 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공적 지원도 미흡해짐에 따라, 점차 자녀 등 가족이나 공적 지원에 의존적인 은퇴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처럼 은퇴준비의 필요성이 더욱더 앞당겨지는 만큼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정기적인 금전소득을 얻게 됨에 따라 경제적 독립을 시작한 청년세대인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나 기존의 은퇴준비 관련 연구들 대부분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이나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홍수아, 2013;배재덕, 2014;박다정, 2015;전연욱, 2016;Cho, 2019;Safari, Njoka, and Munkwa, 2021).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공적연금의 고갈 등 은퇴준비의 필요성이 앞당겨지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사회초년생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은퇴준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외의 연구에서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무적 영역에 국한되어 있어 종합적인 은퇴준비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김정현, 2011; 장몽교, 이승신, 2016;Bongini, & Cucinelli, 2019; Cho, 2019;Safari et al., 2021; 양덕순, 2022; Gallego-Losada, Montero-Navarro, Rodríguez-Sánchez, and González-Torres, 2022). 은퇴준비는 경제적 측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 측면 등을 포함하여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 생애에 걸친 소비수준의 평활화를 통해 생애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은퇴기를 대비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은퇴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종합적인 생활 영역에 대한 은퇴준비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은퇴준비와 관련한 인식과 역량을 주요한 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은퇴준비와 관련된 역량이 은퇴준비로 이어지는 기본적인 요인이며,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 수준과 은퇴준비 실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정운영, 백은영, 2009; 김정현, 박주영, 2013;배재덕, 2014; 박다정, 2015;장몽교, 이승신, 2016;Bongini & Cucinelli, 2019;Cho, 2019;이상주, 2021;Safari el al, 2021;양덕순, 2022;Gallego-Losada et al, 2022). 따라서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은퇴준비와 관련된 역량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 은퇴준비 제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적인 은퇴준비 뿐만 아니라 은퇴 후의 삶을 구성하는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준비 인식, 역량 및 실태를 살펴보고, 인식과 역량이 영역별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은퇴준비를 위해 은퇴준비에 대해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고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본 뒤 이들이 실제 은퇴준비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은퇴준비에 대한 사회초년생들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실제로 적극적인 은퇴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은퇴준비 관련 연구는 중장년층 등 은퇴를 앞둔 특정 세대에 제한되어 이루어졌으나 은퇴준비의 필요성이 더욱 더 앞당겨짐에 따라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사회초년생으로 확장하여 은퇴준비에 대한 이들의 인식, 역량, 실태 전반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은퇴준비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연구에서 벗어나, 은퇴 후 생활의 전반을 아우르는 영역들을 종합한 은퇴준비 연구로 확장하여 생애설계 관점에서 은퇴설계를 접근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동시에 본 연구는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의 현황뿐만 아니라,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과 은퇴준비 역량 및 은퇴준비 실태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은퇴와 은퇴준비 영역

사전적인 의미로서 “은퇴(隱退)”란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 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을 의미하며, 영어의 “은퇴(retirement)” 또한 이와 유사하게 ‘노동하는 시기를 영원히 떠나기로 선택한 인생의 시기(the time of life when one chooses to permanently leave the workforce behind)’로 설명한다. 한편 협의의 의미로는 ‘직장이나 일을 그만두고 퇴직연금을 받거나 수입/직업이 없는 상태’로, 주로 재무적인 차원에서 은퇴를 바라보는 관점이 대부분이다.

전통적으로는 직업이나 일의 종결만을 의미했으나 최근 은퇴 후에도 시간제 일을 가짐으로써 부분적 은퇴, 자신의 일과 직업에서 물러난 완전한 은퇴 등 은퇴의 개념도 다양하게 나누어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은퇴를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시기로서 은퇴 이후 점진적으로 여가생활 등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 추가되었다(박광수, 양재영, 주소현, 2021).

이에 은퇴 이전과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 측면 전반에서 계속적인 생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은퇴설계 혹은 은퇴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은퇴준비는 재무설계의 차원으로만 집중해 노후설계를 하는 관점이 일반적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은퇴설계는 대부분 재무적 차원이나 연금관리에 주목하고 있다. 은퇴설계는 성공적인 은퇴 후 생활을 위해 필요하며 다양한 은퇴준비와 은퇴설계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고 있으나, 대부분 재무적인 영역에 집중해 소득 및 지출과 연금관리, 재무설계에 대한 내용이 중심인 실정이다. Erp, Vermeer and Vuuren(2014)와 Duska(2016)는 일반적으로 재무적 준비에 국한하는 은퇴준비의 경향성에 주목하여 개개인의 은퇴준비 행동이 비재무적 측면의 은퇴준비까지도 포괄해야 할 필요성을 밝혔다. Duska(2016)는 은퇴 전 은퇴시점, 목적,

친구 등 사적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은퇴준비자 및 고객에게 제언할 때 그 고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은퇴설계 시 단순히 재무적 문제에 대한 조언을 제시하는 것 이상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Scharn, Sewdas, Boot, Huisman, Lindeboom and Beek(2018)는 은퇴시점을 결정하는 영역으로 재무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구통계적 요인, 건강요인, 사회적 요인, 사회적 참여, 일의 특성 등을 선정하여 비재무적 측면을 고려한 은퇴준비의 가능성을 밝혔다. 한지형, 최현자(2015)는 은퇴 후 행복한 삶을 결정짓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수행한 연구에서 재무적인 영역이 은퇴자 행복의 30%를 설명할 만큼 중요한 요인이나, 나머지 70%는 재무적 특성 이외의 요인들이 은퇴자의 행복을 하는 결과를 밝히므로 서 비재무적 영역의 은퇴준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은퇴준비는 은퇴라는 사건의 발생과 은퇴가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계산하여 합리적으로 대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국내에서는 웰빙이나 행복의 차원에서 은퇴준비의 영역에 비재무적인 영역을 포함하여 은퇴준비를 종합적인 차원으로 넓힌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최현자, 주소현, 김민정, 김정현, 조혜진(2012)는 기존의 은퇴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 재무적 측면에 국한되었으나 은퇴준비에 비재무적인 측면도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을 밝히며 통합적인 생애설계 관점에서 은퇴준비종합지수를 개발하고 우리나라 가계의 은퇴준비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들은 <표 2-1>과 같이 은퇴준비 영역을 재무적 영역과 여가, 일, 가족 및 친구, 주거, 마음의 안정, 건강을 포함한 비재무적인 은퇴준비 영역으로 구성하여,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한 하위영역 7가지(RAINBOW)에 대해 현재 생활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Satisfaction), 그리고 은퇴 후 삶을 위해 계획을 잘 세워서(Planning) 잘 실행에 옮기고 있는지(Action)를 측정하는 종합적인 은퇴준비모형(SPA모형)을 개발하였다.

<표 2-1> 은퇴준비지수 하위영역(RAINBOW)별 구성요소

하위영역	현재만족도 (Satisfaction)	계획 (Planning)	실행 (Action)
Recreation	여가	은퇴 후 여가	능동적 여가활동참여 정도

(여가)	생활만족도	및 취미활동 준비계획 여부	수동적 여가활동참여 정도 은퇴 후 여가 및 취미활동 준비의 중요성 인식 은퇴 후 여가 및 취미활동 준비계획 실행 정도
Activities (일)	일에 대한 만족도	은퇴 후 일 및 사회활동 준비계획 여부	사회봉사활동 참여 정도 은퇴시점의 고려 여부 은퇴 후 일 및 사회활동 준비의 중요성 인식 은퇴 후 일 및 사회활동 준비계획 실행 정도
Interaction (가족 및 친구)	가족 생활만족도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 준비계획 여부	부부 공동 활동 참여 부부간 대화시간 부부간 가사노동분담 부모-자녀 저녁식사 빈도 사회적관계빈도 가족관계 및 사회적관계의 중요성 인식 은퇴 후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준비계획 실행 정도
Nest (주거)	주거 생활만족도	은퇴 후 주거생활 준비계획 여부	주거점유형태 주거자원의 은퇴재원 활용계획 장기간병기의 주거지 은퇴 후 주거환경에 대한 준비계획 실행 정도
Ballast (마음의 안정)	심리적인 건강상태	은퇴 후 마음의 안정 준비계획 여부	주거환경에 대한 수용성 재무환경에 대한 수용성 은퇴 후 마음의 안정을 위한 준비계획 실행 정도
Opulence (재무)	전반적인 경제생활수준 만족도	은퇴 후 경제생활 준비계획 여부	은퇴자금 조달 가능성 공적연금보유 여부 개인연금보유 여부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및 퇴직연금)보유 여부 은퇴저축(투자) 실행 여부 은퇴 후 경제생활 준비계획 실행 정도
Wellness (건강)	전반적인 건강상태	건강 준비계획 여부	규칙적인 운동 건강검진 흡연행태 질병보험, 통합보험, 의료실비보험 가입 은퇴 후 건강의 중요성 인식 은퇴 후 건강을 위한 준비계획 실행 정도

(최현자 외, 2012, p.81)

이종찬(2020)은 교육학적 맥락으로 중소기업 사무직 중고령자의 은퇴준비도를 검사하기 위해 은퇴준비도의 개념을 '생애 주된 일자리(직장)에서 퇴직 이후에 성공적 노후 및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필요한 생애설계, 일, 건강, 재무, 관계, 여가의 준비 정도'로 정의하고 은퇴준비의 영역을 생애설계, 일, 건강, 재무, 관계, 여가로 구분하였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2020)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개개인들이 행복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후준비의 영역을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2-2>와 같다.

<표 2-2> 종합적인 은퇴준비 영역에 대한 선행연구

최현자 외 (2012)	통합적인 생애설계 차원에서 은퇴준비종합지수를 개발하고 국내 가계의 은퇴준비현황 파악 ▶ 여가(recreation), 일(activities), 가족 및 친구관계(interaction), 주거(nest), 마음의 안정(ballast), 재무(opulence), 건강(wellness)
한지형 외 (2015)	은퇴 후 행복한 삶을 결정짓는 영향요인 ▶ 인구통계학적 특성, 은퇴전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생활자금 충분도, 상속동기, 건강
이종찬 (2020)	교육학적 맥락으로 중소기업 사무직 중고령자의 은퇴준비도 검사 ▶ 생애설계. 일, 건강, 재무, 관계, 여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2020)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개개인들의 행복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 지원 ▶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종합해 볼 때, 은퇴준비의 영역은 재무적 영역뿐만 아니라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최현자 외(2012)는 은퇴준비의 영역을 가장 포괄적으로 7가지 차원으로 구성하고 있어, 본 연구는 이를 참고로 하여 은퇴준비 영역을 재무, 여가, 일, 사회관계, 주거, 마음의 안정, 건강과 같은 7가지로 선정하였다. 먼저 **"재무"**는 은퇴생활자금의 조달가능성과 관련된 영역이다. 재무영역의 은퇴준비는 경제적 측면의 노후준비로 노년기에 갖추어야 할 경제적 수준을 위해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판단에 따라 노후자산을 마련하며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다(전연욱, 2016). 특히 대부분의 은퇴준비 영역이 경

제적 측면과 관련이 있으며 최근 노인빈곤이 사회문제로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은퇴준비의 핵심적인 영역이다. 경제적 노후준비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적 자립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으로(박은산, 2015) 은퇴 및 노후준비를 재무영역의 경제적 준비와 동일시하고 있다.

재무적 영역의 은퇴준비가 핵심적인 은퇴준비 영역임은 사실이나 비재무적인 측면의 은퇴준비 영역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2021)에 따르면 2030세대가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으로 소극적인 여가활동은 TV시청, 모바일 컨텐츠 시청, 인터넷 검색 및 SNS, 게임, 음악감상 등을 적극적인 여가활동은 스포츠 관람 및 참여, 문화예술 관람, 여행, 사회활동(친목모임 및 사교활동) 등이다. 이러한 여가생활은 은퇴 후 삶에 있어 기본적인 사회보장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삶의 질 향상에도 주요한 영역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은퇴 후 시간을 여가활동으로 채움으로써 노년기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며(전연욱, 2016), 여가시간이 막연히 즐거움을 주는 것 이상으로 정서적 안정과 활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여가활동을 포함하여 고려할 수 있다(김윤정, 2010). **"일"**은 은퇴 후에도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직업활동(senior job)과 은퇴 후 사회활동(자원봉사, 사회공헌활동 등)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은퇴 후 삶에 일의 중요도에 대한 연구에서 꾸준히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황혜정, 임효남, 조지용, 조찬주, 김광환, 2022). **"사회관계"**는 부모와의 관계, 친구나 동료 등과의 사적인 관계,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의 관계 등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주거"**는 은퇴 후 거주할 주택, 즉 은퇴 후에 살 거주환경을 의미하며, **"마음의 안정"**은 전반적인 생활만족과 은퇴 후 삶에 대한 전망을 뜻한다. **"건강"**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으로 나뉠 수 있지만 앞서 마음의 안정 영역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정신적 건강의 측면도 포괄하므로 본 연구에서 건강 영역은 신체적 건강을 의미하도록 한정하였다. 주거, 마음의 안정, 건강 영역은 모두 안정된 삶의 질과 관련된 측면의 은퇴준비 영역이라 볼 수 있다.

제 2 절 은퇴준비 실태에 관한 연구

은퇴준비 실태에 관한 연구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으나 주로 중장년층과,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수행되기도 하였다.

먼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은퇴준비 실태를 확인한 연구 중 홍수아(2013)는 4050세대 예비은퇴자 300명을 대상으로 은퇴준비행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폈으며, 이때 은퇴 이후 생활비 조달에 관한 계획, 노후의 직업이나 창업 준비도, 건강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운동 여부, 은퇴 후 주거에 관한 계획, 여가시간 활용 여부, 정서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위한 사회활동 여부를 통해 은퇴준비행동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평균적으로 은퇴준비행동 점수는 3.06/5점이었고, 예비은퇴자의 저축/투자 여부는 46.7%였으며 건강과 주거, 여가 측면에서 5점 만점에 평균 3점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배재덕(2014)은 40~59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은퇴준비 영역을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영역별 은퇴준비 정도를 5점 만점으로 측정하였는데 경제적 측면 3.16, 신체적 측면 3.41, 사회적 측면 3.27 그리고 전체 평균은 3.29로 신체적 측면의 은퇴준비가 잘 되고 있는 반면 경제적 측면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연욱(2016)은 45~64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 측면, 경제적 측면, 여가활동과 사회적 참여 측면으로 노후준비 영역을 구분하였는데, 신체적/정신적 건강 측면의 노후준비 정도에 대한 인식은 평균 3.31점, 경제적 측면은 3.29점, 여가활동과 사회적 참여 측면은 2.99점으로 나타났다. Safari et al.(2021)는 은퇴전 5060세대 361명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은퇴준비 정도를 살폈으며 이들은 대체로 은퇴준비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실제로 은퇴를 목적으로 투자 및 저축을 하는 경우가 4.16/5점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세대인 만큼 다수의 연구들이 재무적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실태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은퇴준비 실태를 살펴본 연구로 박다정(2015)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도를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영

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영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Cho(2019)는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2014) 자료를 활용해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을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은퇴 후 삶을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6%에 그쳤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는 만큼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은퇴세대에 들어서는 시점에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청년층의 은퇴준비와 관련하여, 보험연구원(2021)에 따르면 사회초년생에 해당하는 2030세대의 상당수가 은퇴후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은퇴준비의 필요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인식하고 있음에도 계획이나 실행을 미루는 경향이 있었다. 장몽교, 이승신(2016)은 2030세대 소비자의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을 살펴본 결과 평균 3.68/5점으로 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2030세대 소비자들의 경제적 은퇴준비행동 의도를 높일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확인하였으며, 차경욱, 박미연, 김연주(2008)는 2030세대 임금근로자들의 은퇴재무설계 실태를 살펴본 결과 50%가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실제로 재정적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2030세대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은퇴준비 관련 연구는 주로 재무 및 경제적 영역에 집중하여 은퇴준비 실태를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

특정 연령층에 국한하지 않고 은퇴 전 전세대를 대상으로 은퇴준비 실태를 살펴본 연구들도 확인할 수 있다. 정운영, 백은영(2009)은 은퇴하지 않은 20 ~ 50대 서울 및 수도권 거주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은퇴준비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47.4%로 나타났다. 최현자 외(2012)는 25 ~ 65세 비은퇴자 1,776명을 대상으로 은퇴준비종합지수를 개발하고 측정한 결과, 총 58.3/100점이었으며 가장 준비를 잘하고 있는 가계도 87.5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났다. 양덕순(2022)은 만 30세 이상 59세 이하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노후 재무대비 수준을 살폈으며, 준비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조금이라도 노후재무대

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는 금융자산 대비 86.8%, 주거 대비 80.4%, 증여 대비 60.2%, 상속 대비 61.4%로 상당수가 노후재무대비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은퇴준비 실태 관련 선행연구

연구대상	선행연구	내용
청년층 (2030세대)	차경욱 외(2008)	2030세대 임금근로자들의 은퇴재무설계 실태
	장몽교, 이승신(2016)	2030세대 소비자의 경제적 은퇴준비 행동
중장년층	홍수아(2013)	4050세대 예비은퇴자의 은퇴준비행동
	배재덕(2014)	40~59세 중장년층의 은퇴준비 정도
	전연욱(2016)	45~64세 중장년층의 노후준비 정도에 대한 인식
	Safari et al.(2021)	은퇴 전 5060세대의 개인적 은퇴준비 정도
베이비부머	박다정(2015)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
	Cho(2019)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2014) 자료를 활용해 경제적 은퇴준비행동 분석
은퇴 전 전세대	정운영, 백은영(2009)	은퇴하지 않은 20~50대 서울 및 수도권 거주 청장년층의 은퇴준비 관련 실태 조사
	최현자 외(2012)	25~65세 비은퇴자의 은퇴준비종합지수 측정
	양덕순(2022)	만 30세 이상 59세 이하 성인남녀의 노후 재무대비 수준

제 3 절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공적인 은퇴준비를 위해서는 은퇴준비를 잘 하게 하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은퇴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측면을 증진시키면 좋을지 제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인식과 역량(literacy)의 관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여기에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추가로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

(1)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

먼저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살핀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배문조, 전귀연(2004)은 비은퇴자 20 ~ 60대를 대상으로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소득/성별/연령/은퇴예상연령), 심리변인(자아존중감/내외통제성), 은퇴변인(직업만족도/여가의 필요성 인식/직업에 대한 태도/가족중심적 사고)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은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개인변인 중 소득, 성별, 연령이었고 심리변인 중 자아존중감, 은퇴변인 중 여가의 필요성 인식, 직업에 대한 태도, 가족중심적 사고였다. 경제적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소득과 연령(개인) 그리고 여가의 필요성 인식과 직업에 대한 태도(은퇴)였다. 신체적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개인), 자아존중감과 내외통제(심리), 여가의 필요성 인식(은퇴)이었다. 종합하면 은퇴준비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필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은퇴 준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박다정(2015)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에 대한 인식과 노후준비도의 실태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노후준비도는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영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후준비도는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과 주관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노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전체 노후

준비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때 "노후에 대한 인식"이란 다가오는 노후 생활의 전망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생각하는 것으로, 크게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뉘었다. 전연욱(2016)은 45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신체 및 정신적 건강 측면, 경제적 측면, 여가활동과 사회적 측면의 노후준비에 대한 중요성과 실제준비 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성별, 연령별, 소득별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류재홍(2017)은 은퇴하지 않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여가의 노후준비 영역에 대한 인식이 노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여성은 정서적, 신체적 노후준비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경제적, 여가 노후준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결과로는, 정서적, 신체적 노후준비는 40 세 이상 60세 미만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고, 경제적 노후준비는 50세 이상 60세 미만, 여가 노후준비는 40세 이상 50세 미만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업유형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정서적, 여가 노후준비 수준이 높았고 기업종사자는 경제적, 신체적 노후준비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노후준비를 할 때 노후 만족도 수준이 높아졌다. 이상주(2021)는 중장년층 은퇴자와 예비은퇴자를 모두 포함하여 은퇴준비교육과 사회적 지지 및 성공적 노화예측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은퇴준비역량은 은퇴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으로 나눈 은퇴인식, 그리고 은퇴준비교육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 지지와 사회적 관계로 구성하였고 성공적 노화는 자율적 삶과 자기 수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은퇴역량(인식과 준비교육)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해 성공적 노화예측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은퇴준비역량은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자율적 삶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연구들은 은퇴준비 영역별로 은퇴준비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떻게(긍정 혹은 부정적)생각하는지 등의 인식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한편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태도를 선정하였으나 긍정 혹은 부정적인 인식의 개념과 혼용하여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정운영, 백은영(2009)은 은퇴태도가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인 은퇴준비를 위한 월 적

립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연령, 주택소유형태, 월소득, 은퇴교육 경험여부가 은퇴인식과 은퇴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주관적인 은퇴준비에도 은퇴태도가 유의한 직접적인 효과로 나타났으며, 이때에도 월소득은 은퇴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때 은퇴인식과 은퇴태도는 긍정적일수록 은퇴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은퇴인식 및 은퇴태도"로 명명하였다. 배재덕(2014)은 40~59세 중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은퇴준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과 은퇴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때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은 앞으로의 노후생활에 대한 전망을 의미하며 노인이 되는 시기, 노후준비 시작 적정연령, 노후생활 부양책임, 노후생활 중요사항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은퇴태도는 단순히 긍정 혹은 부정으로 나뉘는 태도보다 다차원적으로 구성하여 노년으로서의 이행인 '휴식으로 전환', 새로운 사업을 위한 투자시기로서 '새로운 출발', 퇴직 전후 별반 다르지 않고 지속된다는 '계속', 은퇴를 가혹한 손실로 간주하는 '강요된 좌절'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중 노인이 되는 시기를 낮은 연령으로 인식할수록, 은퇴태도 중 종합적으로 볼 때 새로운 출발과 계속으로 보는 태도가 은퇴준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위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 많은 연구에서 은퇴 혹은 은퇴준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은퇴준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은퇴준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었는지 등이 성공적인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한편 연구마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은퇴준비 영역과 그 영향정도가 상이하며, 종합적인 은퇴준비 영역을 고려한 연구도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2) 은퇴준비 역량

은퇴준비 역량이란 은퇴 준비에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으로 이들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김정현, 박주영(2013)은 대부분 은퇴설계의 필요성은 절감하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은퇴설계를 실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은퇴설계실행능력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성별/연령/가족수(자녀수) 등의 인구통계변수, 월소득/저축성향/부채유무 등 재무변수, 은퇴설계태도와 지식으로 정리하였으며, 이중 성별, 월소득, 저축성향, 은퇴설계태도가 은퇴설계실행능력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했다. 장몽교, 이승신 외(2016)는 전국 2030세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를 살펴보고자 계획된 행동이론에 재무교육 경험정도, 주관적 금융지식을 추가로 하여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은퇴준비에 대한 태도가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에 가장 높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지각된 행동통제, 주관적 규범, 사회경제적 변수 중 학력의 순서를 보였다. Bongini & Cucinelli(2019) 또한 대학생들이 은퇴준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은퇴를 위한 연금투자의 의도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계획된 행동이론(TPB)에 연금지식, 재정관리, 금융이해력을 추가하여 이들이 은퇴를 위한 연금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Cho(2019)는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경제적 은퇴준비에 대하여 주관적인 금융이해력과 심리학적 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주관적 금융이해력과 심리적 요인은 경제적 은퇴준비, 은퇴준비계획과 정보수집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양덕순(2022)은 금융이해력이 노후 재무대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에 주목하여 금융이해력이 노후재무대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 금융이해력 수준에 따른 노후 재무대비 수준의 집단간 차이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Safari et al.(2021)나 Gallego-Losada et al.(2022) 등 최근 연구에서도 재무적 은퇴준

비에 금융이해력이 미치는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위 연구들은 대부분 은퇴준비 영역을 은퇴재무설계, 즉 재무적 영역으로 국한하였으며 은퇴준비 역량 또한 금융지식의 차원으로 설명하고 지식과 관련된 이해력을 은퇴준비 영역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보았다. 비록 지식에 국한하여 은퇴준비 역량 변수를 활용하였더라도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관련 역량이 더 나은 은퇴준비로 이어지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은퇴준비와 관련된 역량 요인이 실제 은퇴준비를 하는 수준뿐만 아니라 관련된 의도, 인식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3) 인구통계학적 특성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으나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Hira, Whitney, and Loibl(2009)는 은퇴준비행동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연령대별 은퇴준비행동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그중 연령, 결혼여부, 직업, 소득, 교육수준 등이 은퇴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성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Cho(2019)는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1955 ~ 1963년생)를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조사(2014) 자료를 활용해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는데 연구결과 교육수준, 자녀수, 소득수준이 경제적 준비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Murari, Krishna, Shukla, and Adhikari(2021)는 은퇴후 삶에 사회심리학적 요인과 재무적 인식의 영향을 살펴보고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연령, 인종, 성별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와 그 결과를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4> 은퇴준비 영향요인 관련 선행연구

선행연구	내용 및 결과
정운영, 백은영(2009)	▶ 은퇴인식과 태도는 긍정적일수록 객관적인 은퇴준비와 주관적인 은퇴준비행동 모두에 영향
김정현(2011)	▶ 노후설계 영역을 포함하여 소비자의 재무관리 지식, 태도, 기능을 아우르는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 개발
김정현 외(2013)	▶ 은퇴설계실행능력에 성별, 월소득, 저축성향, 은퇴설계태도가 영향
배재덕(2014)	▶ 노인이 되는 시기를 낮은 연령으로 인식할수록, 은퇴를 새로운 출발과 계속으로 보는 태도일수록 은퇴준비에 유의한 정(+)의 영향
박다정 외(2015)	▶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노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전체 노후준비도가 높게 나타남.
장몽교, 이승신(2016)	▶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에 재무교육경험정도, 주관적 금융지식, TPB 중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태도/주관적 규범/지각된 행동통제에 따라 유의한 차이 발견 ▶ 특히 은퇴준비에 대한 태도가 가장 높은 영향을 미쳤음.
Bongini, &Cucinelli(2019)	▶ 대학생의 은퇴를 위한 연금투자에 연금지식, 재정관리, 금융이해력, TPB 중 태도/주관적 규범/지각된 행동통제가 유의한 영향
Cho(2019)	▶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경제적 은퇴준비에 주관적 금융이해력과 심리적 요인이 유의한 영향
이상주(2021)	▶ 중장년층의 은퇴준비의 은퇴준비역량(은퇴인식/은퇴준비교육)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자율적 삶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자율적일수록 은퇴준비에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나타남.
JINYUNEWEN (2021)	▶ 은퇴준비행동에 Big5 성격유형 중 개방성/성실성/외향성, 은퇴준비태도가 유의한 영향
Safari et al.(2021)	▶ 재무적 은퇴준비에 금융이해력이 미치는 유의한 영향 확인
양덕순(2022)	▶ 금융이해력 수준에 따른 노후재무대비 수준의 집단간 차이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남.
Losada et al.(2022)	▶ 재무적 은퇴준비에 금융이해력이 미치는 유의한 영향 확인

제 4 절 사회초년생

사전적인 의미로서 “사회초년생”은 ‘사회에 나와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들은 학생 혹은 취업준비생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집단으로 경제적 독립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라는 점이 특징이다(김아름·양혜경, 2016). 김아름, 양혜경(2016)과 김시월, 이형규(2018)는 이러한 사회초년생을 ‘경제생활을 하는 2030세대 중 재직기간이 5년 이내이며 현재 월 소득이 있는 자’로 정의하였다. 한편 “사회초년생”이라는 명칭은 한국 정서와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서구권에서는 이에 정확히 대응하는 용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young people’이나 ‘youth’, ‘university students’ 대상의 연구가 간혹 시행된 정도였다. 서구권의 경우 부모자녀간 은퇴후 생활에 대한 의존이 낮고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더 발달했다는 인식이 있으나, 실제로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며 연령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노인부양률(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대비 고령층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Gupta & Wong, 2020). 국외 또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은퇴한 노인인구의 부양부담이 사회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별적인 은퇴준비가 어려워지며, 환경의 급진적인 변화에 자녀세대들의 부모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세대의 은퇴준비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실정이다(Schneider, 2010).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연금과 보험체계의 보장성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직업환경과 부모부양의식 약화로 점차 가족이나 공적지원에 의존적인 은퇴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현재 청년세대 및 사회초년생은 은퇴를 대하는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적 독립과 조기 은퇴를 지향하는 “파이어족(Financial Independece, Reteire Early;FIRE)”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청년세대에게 은퇴설계는 반드시 노후설계의 차원으로 국한되지 않고 생애설계의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급격한 환경변화로 이 시기의 은퇴준비가 이르다

고 볼 수 없다. 한편 KB금융그룹(2022)에 따르면 2030세대 1인가구의 평균 은퇴 예상시점을 2020년 62.1세, 2022년 63.2세로 보고 있어 사실상 조기은퇴의 움직임이 아직은 크지는 않았으며, 은퇴 대비 준비 여부로 현재 준비 중인 20대가 2020년 14.4%, 2022년 11.4%, 30대가 2020년 19.1%, 2022년 12.3%로 상당히 저조한 수준에 그쳤다.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심화 및 자산가격 상승과 같은 불안정한 경제환경에서 사회초년생 또한 스스로 은퇴자산을 마련 및 운용할 수 있는 투자상품에 대한 관심 증대하기도 하였다(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1). 이처럼 청년세대 또한 노후준비 뿐만 아니라 생애설계의 차원에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은퇴준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재무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금융이해력 및 금융사회화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김아름 외(2016)에 따르면 사회초년생은 새롭게 얻기 시작한 정기소득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금융태도와 행동 측면이 미비했다. 금융지식, 태도, 행동 영역을 포괄하는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측면에서 이들의 금융이해력은 22점 만점 기준 14.1점, 금융지식 수준은 8점 만점 기준 5.7점, 금융태도 수준은 5점 만점 기준 3.22점, 금융행동 수준은 9점 만점 기준 5.6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초년생의 금융이해력 평균은 한국의 일반 성인보다는 높은 편이나 금융태도나 행동 측면에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이들은 기존 학생 혹은 취업준비생의 위치에서 갑작스럽게 생긴 정기적인 소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재무적인 이해력 수준이 낮다. 김시월, 이형규(2018)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금융이해력 차이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사회초년생에게 재무교육, 특히 신용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은퇴준비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선행연구 또한 재무관리의 차원에서 제언하고 있다. 이진아, 강형구, 김석환(2022)은 최근 6개월간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이상인 만 18~34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사회초년생의 금융니즈와 성향을 파악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재무 설계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초년생의 은퇴

준비를 위해 경제적 대책을 이야기하는 연구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금융감독원, 2021;전국투자교육협의회, 2023).

이처럼 사회초년생부터 은퇴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나 사회초년생에게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은퇴준비와 관련되어 무엇을 실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초년생은 사회경제활동을 시작한 청년세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나 조사에서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조언을 주는 것에 치중되고 있으며 은퇴준비와 관련되어 제공되는 대부분의 자료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소개에 가까운 편이다. 은퇴 전후의 계속적인 삶의 질 유지를 위해서는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생애설계의 차원에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종합해보면,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이들의 효과적인 재무관리를 위해 경제적 수준 및 역량수준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최근에는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은퇴준비 필요성에 주목하여 다양한 상품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다양한 영역을 아울러 사회초년생의 더 나은 은퇴준비를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설계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재무적인 은퇴준비 뿐 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영역들을 포함하여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과 은퇴준비 역량 그리고 은퇴준비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 필요성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은퇴준비 영역별로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는 어떠한가?

1.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 인식(필요성, 중요성)은 어떠한가?
2.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 역량(지식, 태도, 기능)은 어떠한가?
3.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라 은퇴준비 영역별 은퇴준비에 차이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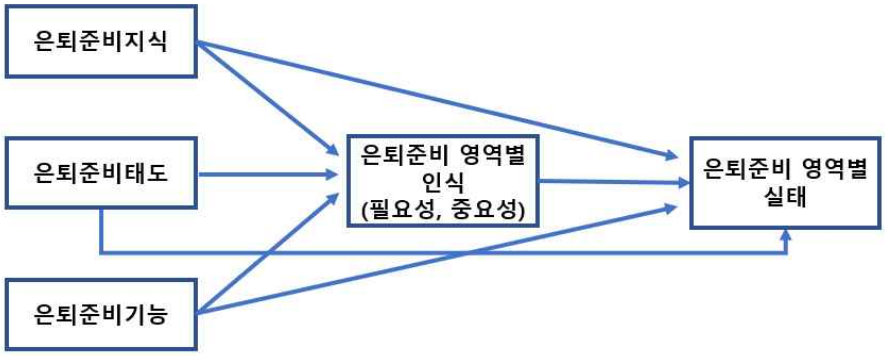
1.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라 은퇴준비 인식(필요성, 중요성)에 차이가 있는가?
2.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라 은퇴준비 역량(지식, 태도, 기능)에 차이가 있는가?
3.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라 은퇴준비 실태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은퇴준비 영역별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 역량, 인식 및 실태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1과 2를 통해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 영역별 은퇴준비 현황을 인식과 역량, 실태로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은퇴준비 영역별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은퇴준비 역량과 은퇴준비 영역별 인식(필요성,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이에 은퇴준비 영역별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은퇴준비 역량과 은퇴준비 영역별 인식(필요성, 중요성)으로 선정하여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은퇴준비와 관련된 역량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김정현, 2011;김정현·박주영, 2013;양덕순, 2022;장몽교, 이승신 외, 2016; Bongini & Cucinelli, 2019;Gallego-Losada et al., 2022;Cho, 2019;Safari et al., 2021) 역량이 실제 은퇴준비와 관련된 행태뿐만 아니라 관련 인식, 태도 등에 선행하였다. 또한 은퇴준비 에 대한 인식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배문조·전귀연(2004); 박다정(2015); 전연욱(2016); 류재홍(2017); 이상주(2021))은퇴준비 영역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필요하게 생각하는지 필요성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중요성의 인식하는 정도는 은퇴준비로 이어지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은퇴준비에 필요한 역량이 영역별 은퇴준비 실태로 미치는 관계에 있어 은퇴준비 영역별 인식(필요성, 중요성)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문제 3)을 해결하기 위해 <그림 3-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위 모형을 기반으로 은퇴준비 영역별 사회초년생들의 은퇴준비에 은퇴준비 역량과 은퇴준비 영역별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취업한 지 5년 이내에 현재 월소득이 있는 20 ~ 30대 사회초년생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조사와 예비조사 모두 온라인 설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예비조사 상에서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여 본 조사를 진행하였고 본 조사는 온라인 설문업체인 '엠브레인'을 통해 2023년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진행하여, 54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26.0과 STATA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크론바흐 알파값)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사회초년생의 특성과 연구문제1의 은퇴준비 인식, 역량, 실태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 인식, 역량, 실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과 t-test 및 ANOVA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은퇴준비 역량, 지각된 중요성, 실태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통한 매개효과검정을 실시하였다.

제 2 절 설문 및 척도의 구성

1. 설문의 구성

본 연구는 종합적인 은퇴준비 영역별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 역량, 실태,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은퇴준비영역은 최현자 외(2012)의 연구와 같이 여가 및 취미활동, 일 및 사회활동, 사회관계, 주거, 마음의 안정, 재무, 건강 등 7개 영역으로 나누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직업, 소득수준, 교육수준과 더불어 언제 은퇴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예상은퇴시점을 포함하였다.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최현자 외(2012)의 연구를 참고로 은퇴준비 영역별 필요성과 중요한 정도,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은퇴준비 영역별 필요성은 '예' 혹은 '아니요'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은퇴준비 영역별 중요한 정도는 10점 리커트 척도로,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는 7가지 영역에 대한 순위 척도로 구성하였다. 은퇴준비역량은 김정현(2011)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은퇴준비에 관한 지식, 태도, 기능의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제별 은퇴준비역량 중 지식은 O/X, 태도와 기능은 5점 리커트 척도의 형식으로 측정되었다. 은퇴준비 실태는 최현자 외(2012), 홍수아(2013), 박다정(2015) 등을 참고하여 은퇴준비 영역별 실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예' 혹은 '아니요' 또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표 3-1> 설문의 구성

주요 변인		척도	관련 연구
측정 변인	**내용**		
사회초년생 특성	성별, 연령, 직업, 소득수준, 교육수준, 예상은퇴시점	-	-
은퇴준비 인식	은퇴준비 영역별 필요성	예, 아니요	최현자 외 (2012)
	은퇴준비 영역별 중요한 정도	10점 리커트 척도	
	은퇴준비 영역 우선순위	순위 척도	
은퇴준비 역량	은퇴준비에 관한 지식, 태도, 기능의 역량 수준을 측정	O/X, 5점 리커트 척도	김정현 (2011)
은퇴준비 실태	은퇴준비 영역별 은퇴준비 실태 측정	예, 아니요 혹은 5점 리커트 척도	최현자 외 (2012);홍수아(2013);박다정(2015)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척도의 구성

(1) 은퇴준비 인식

심리학이나 기타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인식(Cognition)”을 인지와 같은 용어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식은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 과정으로 지각, 기억, 상상, 개념, 판단, 추리를 포함하여 무엇을 안다는 것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용어로 쓴다. 많은 연구에서 의식적인 처리는 비의식적인 처리와 병행처리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James, 2019). 본 연구에서는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 인식으로 은퇴준비 필요성, 은퇴준비 영역별 필요성, 은퇴준비 영역별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은퇴준비 필요성은 지금 은퇴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예’와 ‘아니요’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대해(‘예’) 그렇다면 언제부터 은퇴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추가로 살펴보았다. 이때 은퇴준비 시기에 대해서는 ‘① 이미 하고 있다. ② 향후 5년 이내 ③ 향후 10년 이내 ④ 향후 10년 이후’로 응답하도록 하고, ‘④ 향후 10년 이후’에 응답한 경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몇 살 정도부터 준비를 하려고 하십니까?”를 추가하여 은퇴준비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은퇴준비 영역별 필요성은 은퇴준비의 7가지 영역 중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응답하도록 구성하였으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영역에 대해(‘예’) 그렇다면 해당 영역에 대한 은퇴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추가로 살펴보았으며 앞서 은퇴준비 필요성의 시기에 대한 응답과 같이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은퇴준비 영역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최현자 외(2012)의 은퇴준비지수 산정방법 중 중요성 인식을 측정하는 방식을 참고로 하여 은퇴준비의 7가지 영역별 각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1 ~ 10점 사이로 보다 세분화하여 구성하였다. 추가로 은퇴준비의 7가지 영역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1 ~ 7순위로 응답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여 앞선 은퇴준비 영역

별 중요성 인식에 관한 문항에서의 응답결과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은퇴준비 인식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등간척도 이상의 문항인 은퇴준비 영역별 중요한 정도에 대한 인식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는 0.873으로 나타났으며 0.6 이상이므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표 3-2> 은퇴준비 인식 측정문항

은퇴준비 필요성	귀하는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 ▶ 귀하는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준비가 언제부터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요
은퇴준비 영역별 필요성	은퇴 후 생활에 있어서 *(각 은퇴준비 영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은퇴준비 영역: 여가 및 취미활동, 일 및 사회활동, 가족 및 친구 등 사회관계, 주거환경, 마음의 안정, 재무상태, 건강상태)* ▶ 예 ▶ ▶ 그렇다면 *(각 은퇴준비 영역)*에 대한 은퇴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요
은퇴준비 영역별 중요한 정도	은퇴 후 생활에서 *각 은퇴준비 영역*별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1~10점 사이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최고10점)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각 은퇴준비 영역: 각 은퇴준비 영역: 여가 및 취미활동, 일 및 사회활동, 가족 및 친구 등 사회관계, 주거환경, 마음의 안정, 재무상태, 건강상태*)
은퇴준비 영역 우선순위	다음의 은퇴준비 영역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가 및 취미활동 / 일 및 사회활동 / 가족 및 친구 등 사회관계 / 주거환경 / 마음의 안정 / 재무상태 / 건강상태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순위( ) 7순위( )

(2) 은퇴준비역량

은퇴준비에 필요한 역량을 구성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재무적 차원의 관련지식에 집중되어 있어 은퇴준비 지식을 주로 일반적인 재무지식이나 금융이해력을 구성하는 지식, 연금이해력(pension literacy), 연금지식(pension knowledge) 등을 활용하였다(금융감독원(2021); 김정현, 박주영(2013); Bongini & Cucinelli(2019); Safari et al.(2021); Cho(2019)).

김정현(2011)의 재무관리역량 중 노후설계 역량을 은퇴준비역량으로 재구성하여 사회초년생들의 은퇴준비 인식과 실태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은퇴준비역량은 지식, 태도, 기능으로 나누었으며 은퇴준비지식은 은퇴준비와 관련된 지식에 대한 4가지 OX퀴즈로 구성하였다. 은퇴준비 태도와 기능은 각 2개와 4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은퇴준비 태도의 Cronbach's α은 0.60, 은퇴준비 기능의 Cronbach's α은 0.88이었다.

<표 3-3> 은퇴준비역량 측정 문항

은퇴준비 역량	문항	척도
은퇴준비 지식	전문가로부터 은퇴설계를 받아 두었다면, 시간이 지나도 포트폴리오나 목표액수 등을 되도록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답X)	O / X
	은퇴기 소득원은 예상되는 각종 연금과 저축액 및 부동산 수익 등을 모두 더하여 구한다. (정답O)	
	은퇴 후 생활비는 현재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정답O)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이 안정적이므로 개인적으로 연금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X)	
은퇴준비 태도	나는 아직은 은퇴기를 대비한 준비나 설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5점 리커트 척도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에 의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은퇴준비 기능	나는 나의 은퇴준비에 관련된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실행할 수 있다.	5점 리커트

	나는 은퇴대비자금으로, 저축이나 부동산 뿐 아니라 각종 연금 형태의 재원이 다양하게 마련하였거나 마련할 수 있다.	척도
	나는 나의 은퇴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할 수 있다.	
	나는 번 돈에서 은퇴대비를 위한 저축을 일단 먼저 하고 나머지로 생활을 하려고 한다.	

(김정현, 2011, p.67-77)

(3) 은퇴준비 실태

본 연구에서는 은퇴준비 영역별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재무 영역은 최현자 외(2012)를 참고하여 은퇴 후 적정 월 생활비, 공적연금 가입여부, 개인연금 가입여부, 퇴직급여제도 가입여부, 은퇴생활비 목적의 저축(투자)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이때 개인연금과 퇴직급여제도는 가입하고 있는 경우 가입하고 있는 종류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은퇴생활비 목적의 저축(투자)은 월 저축(투자)액을 기입하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건강 영역은 은퇴기를 대비한 건강 관련 보험 가입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문항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홍수아(2013)의 연구를 참고로 여가, 일, 주거, 건강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박다정(2015)의 연구를 참고로 사회관계 및 마음의 안정 영역의 문항을 설정하였다. 주거와 건강 영역은 최현자 외(2012)와 홍수아(2013)의 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특정 연금이나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질문과 같이 '예'와 '아니요'로 묻는 문항을 제외하고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한 은퇴준비 실태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값이 0.784로 나타났으며 0.6 이상이므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표 3-4> 은퇴준비 실태 측정 문항

재무 (최현자 외,2012)	은퇴 후 적정 월 생활비(은퇴자금)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월 약_____만원)
	공적 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개인연금에 가입하셨습니까? ▶ 예 ▶ ▶ 가입하신 개인연금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② 연금저축-연금저축펀드 ③ 연금저축-연금저축신탁 ④ 연금보험-일반연금보험 ⑤ 연금보험-변액연금보험 ⑥ 연금보험-자산연계형 연금보험 ▶ ▶ 개인연금으로 매달 얼마를 저축하십니까? (월 약_만원) ▶ 아니요
	직장에서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예 ▶ ▶ 귀하의 직장에서 가입되어 있는 퇴직급여제도는 무엇입니까? ① 확정급여형(DB) ② 확정기여형(DC) ③ 개인형 퇴직연금(IRP) ④ 잘 모르겠다 ▶ 아니요
	위의 연금 이외에 은퇴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저축(투자)하고 계십니까? ▶ 예 ▶ ▶ 한달에 얼마나 저축(투자) 하십니까? (월 약____만원) ▶ 아니요
	나는 은퇴 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을 하고 있다. ▶ 5점 리커트 척도
여가 (홍수아,2013)	나는 은퇴 후 여가시간에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거나 하고 싶은 것이 있다. ▶ 5점 리커트 척도
일 (홍수아,2013)	나는 은퇴 후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에 대해 준비를 하거나 생각을 하고 있다. ▶ 5점 리커트 척도
사회관계 (박다정,2015)	나는 은퇴 후에도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5점 리커트 척도
주거	나는 은퇴 후 살 곳을 마련해 두었거나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

(최현자 외,2012 ;홍수아,2013)	▶ 5점 리커트 척도
마음의 안정 (박다정,2015)	나는 은퇴 후의 삶을 편안하게 받아들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 5점 리커트 척도
건강 (최현자 외,2012 ;홍수아,2013)	나는 은퇴 후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 5점 리커트 척도
	은퇴기를 대비하여 건강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 예 ▶ ▶ 가입하고 계신 보험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질병보험 ② 통합보험(종합보험) ③ 실손의료보험 ▶ 아니요

제 3 절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포함한 사회초년생의 특성은 다음 <표 3-5>와 같다. 응답자의 51.9%가 남성이었고 연령대는 20대와 30대의 비중이 50%로 같았다. 직업으로는 사무직이 65.4%로 가장 많았고, 최종학력으로는 대학교 재학 및 졸업이 79.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은 약 277만 원이었고, 중위값은 250만 원, 최소값은 100만 원 그리고 최대값은 890만 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였을 때 250만 원 미만 37.6%, 250만 원 이상 350만 원 미만 48.1%, 350만 원 이상 143.%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예상 은퇴시점은 평균 59.1세, 중위값은 60세로 나타났으며, 특히 50세와 55세 각 12%, 60세 33%, 65세 22.2%, 70세 7%에 응답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평균을 고려하여 60세로 예상 은퇴시점의 연령대를 나눌 경우 60세 미만 32.2%, 60세 이상 67.8%로 나타났다.

통계청(2021, 2022)에 따르면 20대 초반과 후반, 30대 초반과 후반 모두 여성인구에 대한 남성인구의 비가 100 이상으로 여성이 과다표집된 경향이 있으나 연령대별 소득의 경우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3-5> 사회초년생의 특성

변수	내용	N(%)	M(S.D)
성별	남성	260(48.1)	-
	여성	280(51.9)	
연령(세)	20대	270(50.0)	30.5(4.04)
	30대	270(50.0)	
직업	전문, 경영, 관리직	92(17.0)	-
	사무직	353(65.4)	
	노동, 생산, 판매, 서비스직	95(17.6)	
최종학력	고졸 이하	48(8.90)	-
	대학교 재학 및 졸업	431(79.8)	
	대학원 재학 및 졸업	61(11.3)	
월평균 소득	250만 원 미만	203(37.6)	277만원(93.2)
	250만 원 이상 ~ 350만 원 미만	260(48.1)	
	350만 원 이상	77(14.3)	
예상은퇴시점	60세 미만	174(32.2)	59.1세(6.86)
	60세 이상	366(67.8)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은퇴준비 영역별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 실태

1.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 인식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으로 은퇴준비 영역별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은퇴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응답자의 예상 은퇴준비시점은 <표 4-1>과 같다. 예상 은퇴준비시점은 이미 하고 있는 경우와 향후 5년 이내 및 10년 이내 그리고 향후 10년 이후로 예상하는 경우로 나누었으며, 은퇴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응답자의 26.5%를 차지하였고 향후 5년 이내에 은퇴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는 38.5%로 가장 많았다. 향후 10년 이후로 은퇴준비시점을 예상한 응답자 81명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은퇴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추가로 측정한 결과 40대(46.9%)와 50(42%)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신한은행(2022)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20~64세 경제활동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41.5세부터 은퇴·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의 사회초년생 중 은퇴준비를 이미 하고 있거나 향후 5년 이내로 은퇴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향후 10년 이후로 미룬 경우 신한은행(2022)의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예상 은퇴준비시점을 평균 46.68세로 설정하였다. 향후 10년 이후로 예상 은퇴준비시점을 미룬 경우 중 예상 은퇴준비시점을 30대로 응답한 4명의 경우 각각 22세(33세로 예상), 23세(35세로 예상), 24세(37세로 예상), 27세(38세로 예상)로 나타났고 현재 연령의 11 ~ 13년 이후에 은퇴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10년 이후에 은퇴준비시점을 예상한 응답자의 예상 은퇴준비시점 연령과 현재 연령의 차는 최소 11세에서 최대 40세였으며, 향후 10년

이후에 은퇴준비를 시작하겠다고 예상한 응답자는 평균 약 17년 이후에 은퇴준비를 시작하겠다고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로 11 ~ 15년 이후에 은퇴준비를 시작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표 4-1> 예상 은퇴준비시점 N=540(100%), 단위: N(%)

이미 하고 있다		143(26.5)
향후로 연기	향후 5년 이내	208(38.5)
	향후 10년 이내	108(20.0)
	향후 10년 이후	81(15.0)

다음으로 은퇴준비 영역별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은 <표 4-2>와 같다.

<표 4-2> 은퇴준비 영역별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 N=540(100%)

	필요성 인식 (N(%))	중요성 인식 (점(S.D))
여가 취미	512(94.8)	7.57(1.84)
일 사회	509(94.3)	7.59(1.71)
사회 관계	484(89.6)	7.74(1.77)
주거 환경	526(97.4)	8.57(1.57)
마음 안정	505(93.5)	8.31(1.73)
재무	533(98.7)	8.85(1.54)
건강	525(97.2)	9.01(1.45)

먼저 은퇴준비의 7가지 영역별 필요하다고 인식한 빈도(%)는 재무(98.7%), 주거환경(97.4%), 건강(97.2%), 여가 및 취미활동(94.8%), 일 및 사회활동(94.3%), 마음의 안정(93.5%), 가족 및 친구 등 사회관계(89.6%) 순으로 나타났다. 재무 다음으로 주거환경, 건강 등 재무적인 은퇴준비와 관련이 깊을수록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모든 영역에서 대체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가족 및 친구 등 사회관계의 필요성 인식 수준은 유일하게 응답자의 90%를 넘지 않았으나 89.6%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지 않은 수준이었다.

<표 4-3> 은퇴준비 영역별 필요성 인식에 따른 예상 은퇴준비시점

단위: N(%)

	이미 하고 있다	향후로 연기		
		향후5년이내	향후10년이내	향후10년이후
여가 취미 512(94.8)	98(19.1)	176(34.4)	110(21.5)	128(25.0)
일 사회 509(94.3)	73(14.3)	156(34.6)	125(24.6)	155(30.5)
사회 관계 484(89.6)	135(27.9)	116(24.0)	118(24.4)	114(23.6)
주거 환경 526(97.4)	145(27.6)	146(27.8)	123(23.4)	112(21.2)
마음 안정 505(93.5)	131(25.9)	115(22.8)	106(21.0)	153(30.3)
재무 533(98.7)	213(40.0)	162(30.4)	99(18.6)	59(11.0)
건강 525(97.2)	257(49.0)	166(31.6)	63(12.0)	39(7.43)

다음으로 은퇴준비 영역별 필요하다고 인식한 경우의 예상 은퇴준비시점에 대해(표 4-3), 은퇴준비 영역별로 대체로 향후 5년 이내에 준비할 계획이거나 이미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재무와 건강 영역의 은퇴준비를 이미 하고 있거나 향후 5년 이내에 준비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여가 및 취미활동, 일 및 사회활동, 마음의 안정 영역은 향후 10년 이후로 은퇴준비를 미루는 경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추가로, 향후 10년 이후부터 은퇴준비를 할 것이라고 응답한 영역 모두 전반적으로 40세, 45세, 50세, 55세에 집중하여 분포하였으며 특히 50세에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주거환경에 대한 은퇴준비 필요성은 재무 영역에 이어 높은 편이나 은퇴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 경우가 26.9%에 그쳤으며, 향후 10년 이후 40세와 50세에 은퇴준비를 시작하겠다고 예상한 응답이 많았다. 재무적 은퇴준비의 필요성은 이미 은퇴준비를 하고 있거나 향후 5년 이내에 준비할 계획인 경우가 많아 향후 10년 이후에

준비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적은 편이었으며, 그 중 40 ~ 60세 사이 특히 40세, 45세, 50세에 많이 응답한 편이었다.

은퇴준비 영역별 중요성 인식의 경우(<표 4-2> 참조) 다른 영역과 달리 건강에 대한 은퇴준비의 중요성은 9.0으로 가장 높았으며 표준편차 또한 가장 작아 응답자간 편차가 크지 않게 건강에 대한 은퇴준비의 중요성을 높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건강 다음으로는 재무적 은퇴준비와 주거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보았으며, 여가 및 취미활동과 사회관계 영역의 중요성을 가장 낮게 보았으나 평균 7점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또한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의 평균이 낮은 여가 및 취미활동과 사회관계의 영역에 대한 표준편차가 커 응답자간 중요성 인식의 편차가 컸다. 은퇴준비의 영역을 신체적·정신적 건강 측면, 경제적 측면, 여가활동과 사회적 참여로 나눈 전연욱(2016)의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의 은퇴준비 영역별 중요성이 신체적·정신적 건강 측면(3.96), 경제적 측면(3.88), 여가활동과 사회적 참여 측면(3.73)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했다.

추가로 은퇴준비 영역별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여가 및 취미활동과 일 및 사회활동은 대체적으로 6, 7순위의 낮은 순위를, 사회관계와 마음의 안정은 대체적으로 4 ~ 7순위의 중간에서 낮은 순위를, 재무와 건강, 그리고 주거환경은 대체적으로 1 ~ 3순위의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2.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 역량

응답자의 은퇴준비역량 수준은 다음 <표 4-4>와 같다. 은퇴준비 지식은 평균 점수는 2.85점(4점 만점)이고, 전체 정답률은 71.4%로 나타났다. 은퇴기 소득원과 연금에 대한 문항의 평균 정답률이 80% 이상인 반면 은퇴설계의 변동 가능성에 대한 문항은 70.2%로 다소 낮은 정답률을 보였고, 은퇴 후 생활비 산정에 대한 문항의 정답률이 47.6%로 가장 낮았다. 은퇴준비 태도는 5점 만점에 3.11점이었으며, 은퇴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문항과 은퇴준비 소득원의 다양성에 대한 문항 각각은 3.50점과 2.72점으로 나타났다. 은퇴준비 기능은 5점 만점에 3.16점이었으며 은퇴준비 계획과 실행이 3.30점으로 가장 높고 은퇴자금 계산이 2.97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은퇴준비역량 결과 N=540(100%)

	문항	M(S.D)	정답률(%)
은퇴준비 지식	전문가로부터 은퇴설계를 받아 두었다면, 시간이 지나도 포트폴리오나 목표액수 등을 되도록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답X)	-	70.2
	은퇴기 소득원은 예상되는 각종 연금과 저축액 및 부동산 수익 등을 모두 더하여 구한다. (정답O)	-	83.3
	은퇴 후 생활비는 현재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정답O)	-	47.6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이 안정적이므로 개인적으로 연금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X)	-	84.3
	전체	**-**	**71.4**
은퇴준비 태도	나는 아직은 은퇴기를 대비한 준비나 설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1)]	3.50(1.05)	-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에 의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1)]	2.72(1.16)	
	전체	**3.11(.89)**	

은퇴준비 기능	나는 나의 은퇴준비에 관련된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실행할 수 있다.	3.30(.817)	-
	나는 은퇴대비자금으로, 저축이나 부동산 뿐 아니라 각종 연금 형태의 재원이 다양하게 마련하였거나 마련할 수 있다.	3.14(.918)	
	나는 나의 은퇴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할 수 있다.	2.97(.933)	
	나는 번 돈에서 은퇴대비를 위한 저축을 일단 먼저 하고 나머지로 생활을 하려고 한다.	3.25(.939)	
	전체	**3.16(.71)**	

1) 역코딩 문항

은퇴준비역량 하위영역별(지식/태도/기능) 비교를 위해 김정현(2011)에 따라 다음 식을 활용하여 백분위 점수로 표준화하였으며 <표 4-5>와 같다.

$$\text{백분위 표준점수} = \frac{100*(\text{관측값} - \text{최저점})}{\text{최고점} - \text{최저점}}$$

은퇴준비 지식, 태도, 기능의 평균을 백분위 점수로 환산한 결과 은퇴준비 지식이 71.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은퇴준비기능이 54.2점, 은퇴준비 태도가 52.8점으로 나타났다.

<표 4-5> 응답자의 은퇴준비 역량 백분위 표준점수

N=540(100%) 단위: 점

	M(S.D)	최소값	최대값	사분위수	
				q25	q75
은퇴준비 지식	71.3(21.4)	0	100	50.0	75.0
은퇴준비 태도	52.8(22.3)	0	100	37.5	75.0
은퇴준비 기능	54.2(17.7)	0	100	43.8	68.8

3.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 실태

7가지의 은퇴준비 영역에 대한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 실태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한 결과 건강(3.93), 재무(3.76), 여가 및 취미활동(3.74), 사회관계(3.74), 일 및 사회활동(3.55), 주거환경(3.21)순으로 나타났다(<표 4-6> 참조). 주거환경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경우를 은퇴준비 실태가 미비하다고 보았을 때 149명(27.6%)으로 가장 많아 사회초년생의 주거환경 영역에 대한 은퇴준비 실태가 미비한 편이었다. 또한 주거관련 은퇴준비의 실태에 편차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4-6> 은퇴준비 영역별 은퇴준비 실태

N=540(100%) 단위: 점(S.D)

은퇴준비 영역	점수 (5점 만점)
여가 취미	3.74(.879)
일 사회	3.55(.944)
사회관계	3.74(.825)
주거환경	3.21(1.09)
마음의 안정	3.53(.856)
재무	3.76(.972)
건강	3.93(.802)

앞서 재무와 건강 영역에 대해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나, 본 조사에 응답한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게 인식하는 은퇴준비 영역인 재무와 건강 영역에 대해 추가적인 실태를 살펴보았다. 먼저 재무영역의 은퇴준비 실태는 적정 월 생활비, 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가입현황, 은퇴생활목적의 월 저축 및 투자액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은퇴 후 적정 월 생활비는 평균 월 221만 원 정도로, 이는 신한은행(2022)의 <신한 미래설계 보고서> 조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은퇴생활목적으로 저축(투자)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51.9%였으며 이들은 월 평균 80.5만 원을 저축(투자)한다고 답했다. 신한은행(2022)의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라 노후자금 마련 목적 월 저축액이 40대는 월 27만 원, 50대는 32만 원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노후보장 3층연금으로 일컫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모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14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7.2%에 해당하였다. 한겨레, 김교성(2019)은 한국복지패널의 2차년도부터 1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실질적인 구축이력과 구조를 파악한 결과 전체 3,329명의 응답자 중 10.4%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갖춘 다층보장형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비해 본 조사에 응답한 사회초년생이 3층연금을 모두 갖춘 경우가 비교적 더 많았다. 공적연금 가입률은 응답자의 65.7%를 차지하였으며 2021년 저소득층 제외 일반 국민의 공적연금 가입 실태(52.15%)[1], 그리고 한겨레 외(2019)의 연구에서 국민연금 중심형을 갖춘 개인이 20.6%인 경우보다 많았다. 이는 본 조사가 취업한 지 5년 이내이며 정기적인 월 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83.1%, 그중 확정급여형(DB)은 18.9%, 확정기여형(DC)은 22%, IPR는 23.2%로 나타났으며 그 외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35.9%를 차지하였다. 통계청(2022)의 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퇴직연금 가입률 53.3%, 그중 DB 45.7%, DC 51.6%, IPR 0.9%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2], 본 조사 응답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통계청(2022) 결과와는 다르게 IRP, DC, DB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조사 응답자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음에도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35.9%)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스스로 선택하여 가입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IRP 가입자의 경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연금 가입률은 40.7%이며 평균 월 33.6만원을 개인연금에 저축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또한 한겨레 외(2019)의 연구에서 개인연금 중심형이 14.8%인 경우보다 많았다. 개인연금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보험(43.6%), 연금저축펀드(31.4%), 일반연금보험(21.4%), 연금저축신탁(7.72%), 변액연금보험(5%), 자산 연계형 연금보험(4.55%)순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2013 ~ 2017년도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실태”, 한국복지패널조사.

2) 통계청(2022), “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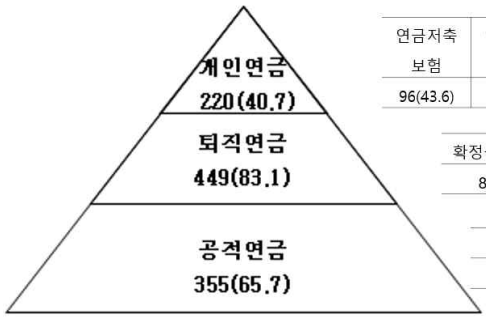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해 사적연금 수요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김대환 외(2020)의 연구에서는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9% 정도였으며 연간 355.08만 원을 납부하여 월 평균 29.6만 원을 납부하는 것과 비교하면 가입 현황 및 월 저축액이 본 조사에 응답한 사회초년생의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해 스스로 선택하여 연금을 가입하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은퇴소득원을 높은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갖춘 경우 56.1%,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갖춘 경우 35.4%,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갖춘 경우 31.1%로 나타나, 이 또한 한겨레, 김교성(2019)의 연구에서 국민·퇴직형 12.2%, 국민·개인형 15.3%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 시점의 사회초년생일 경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가입 가능성이 높아 사회초년생의 은퇴소득원은 국민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일 수 있다. 한편 연금을 통한 은퇴소득원 마련의 충분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향후 사회초년생의 은퇴소득원으로 연금 이외의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건강영역의 은퇴준비 실태로 건강보험가입 여부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7.4%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그중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82.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통합보험(종합보험)이 58.8%, 질병보험이 46.2%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표 4-7> 재무 및 건강 영역 은퇴준비 실태 N=540(100%)

재무적 영역 (단위: 만 원(S.D))		건강 영역 (단위: N(%))	
적정 월 생활비	221(91.4)	건강보험가입	364(67.4)
은퇴생활목적 월 저축 및 투자액 (N=280, 51.9%)	80.5(63.0)	실손의료보험	299(82.1)
		통합보험(종합보험)	214(58.8)
		질병보험	168(46.2)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신탁	일반연금 보험	변액연금 보험	자산 연계형 연금보험
96(43.6)	69(31.4)	17(7.72)	47(21.4)	11(5.00)	10(4.55)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	잘 모르겠다
85(18.9)	99(22.0)	104(23.2)	161((35.9)

공적+퇴직	공적+개인	퇴직+개인	공적+퇴직+개인
303(56.1)	168(31.1)	191(35.4)	147(27.2)

<그림 4-1> 은퇴소득원 (단위: N(%))

4. 소결

본 절에서는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 현황을 은퇴준비 인식, 역량, 실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은퇴준비 인식으로 예상 은퇴준비시점과 은퇴준비 영역별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본 조사에 응답한 사회초년생의 예상 은퇴준비시점은 주로 향후 5년 이내로 은퇴준비를 시작하겠다고 연기하는 경우였으며, 향후 10년 이후로 은퇴준비시점을 예상한 응답자 81명의 경우 40 ~ 50대부터 은퇴준비를 시작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은퇴준비의 필요성이 사회초년생까지 앞당겨졌음에도 대체로 30대 이후로 은퇴준비를 미루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은퇴준비 영역별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을 살펴본 결과, 건강, 재무, 주거환경의 영역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나 중장년층 혹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전연욱, 2016). 한편 은퇴준비 영역별 필요성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 9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게 인식하여, 본 조사에 응답한 사회초년생들이 대체로 모든 은퇴준비 영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중요성 인식의 응답결과 영역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건강 영역은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편차가 가장 낮아 사회초년생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은퇴준비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재무적인 영역과 관련이 깊은 건강, 재무, 주거환경 영역의 경우 중요성 인식의 평균 점수는 높은 편이며 편차도 낮아 사회초년생들이 특히 중요하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은퇴준비 역량은 은퇴준비 지식, 태도, 기능으로 구분지어 살펴보았으며 백분위 점수로 표준화하여 비교한 결과 은퇴준비 지식, 기능, 태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은퇴자금 마련 및 계산과 관련된 문항에서 은퇴준비 지식, 태도, 기능 모두 정답률 혹은 평균이 낮아 앞서 은퇴준비 인식에서 재무적 영역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음에도 실질적인 역량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영역별 은퇴준비 실태의 경우 건강, 재무, 여가 및 취미활동 순으로 은

퇴준비를 실제로 하고 있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서 건강과 재무 영역의 은퇴준비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았던 결과에 상응하였다. 한편 주거환경 영역의 경우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았음에도 은퇴준비는 가장 미비하였으며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주거환경 영역은 필요성과 중요성을 높게 인식함에도 사회초년생이 은퇴에 대비한 준비를 하기에 사회초년생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초년생 간 차이도 큰 영역일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추가로 앞서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중요시하던 건강과 재무 영역에 대한 추가적인 은퇴준비 실태로 은퇴소득원 및 건강보험 가입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선행연구에서 권장하는 수준이나 중장년층 및 전세대의 실태와 비교하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의 차이

1.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 인식의 차이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월평균 소득 등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라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준비 영역별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을 보기에 앞서 언제 은퇴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예상 은퇴준비시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라 예상하는 은퇴준비시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8>에 정리하였다. 이때 예상 은퇴준비시점을 이미 은퇴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만이 예상 은퇴준비시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은퇴준비를 이미 시작하지 않고 향후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연령의 경우 20대보다는 30대에 은퇴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직업 중 사무직의 경우 은퇴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은퇴준비를 향후로 연기한 경우에 비해 이미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경우는 노동, 생산, 판매, 서비스직이었다.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와 대학교 재학 및 졸업은 은퇴준비를 향후로 연기한 경우에, 대학원 재학 및 졸업은 은퇴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고 인식한 경우에 비중이 더 높았다. 월평균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일 때는 은퇴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보다 향후로 연기한 경우로, 205만 원 이상일 때는 반대의 경우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예상하는 은퇴시점을 60세 미만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은퇴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았다.

<표 4-8>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른 예상 은퇴준비시점의 차이

N=540(100%)

사회초년생 특성		예상 은퇴준비시점 (N(%))		k^2
		이미 하고 있다	향후로 연기	
성별	남성	82(57.3)	178(44.8)	6.58*
	여성	61(42.7)	219(45.2)	
연령	20대	64(44.8)	206(51.8)	2.14
	30대	79(55.2)	191(48.2)	
직업	전문, 경영, 관리직	24(16.8)	68(17.1)	.982
	사무직	90(62.9)	263(66.3)	
	노동, 생산, 판매, 서비스직	29(20.3)	66(16.6)	
학력	고졸 이하	12(8.3)	36(9)	3.25
	대학교 재학 및 졸업	109(76.2)	322(81.1)	
	대학원 재학 및 졸업	22(15.5)	39(9.9)	
월평균 소득	250만 원 미만	44(30.8)	159(40.1)	4.85
	250만 원 이상 ~ 350만 원 미만	73(51.0)	187(47.1)	
	350만 원 이상	26(18.2)	51(12.8)	
예상 은퇴시점	60세 미만	47(32.8)	127(31.9)	.037
	60세 이상	96(67.2)	270(68.1)	

*p< .05, ** < .01, *** < .001

다음으로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라 은퇴준비 영역별 필요성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교차분석 결과 <표 4-9>과 같다. 대체로 모든 은퇴준비 영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교차분석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 영역별 필요성 인식의 경향은 다음과 같다. 대체로 여성은 남성보다 은퇴준비 영역별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의 비중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높았으나 사회관계 및 주거환경의 영역만

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20대와 30대는 대체로 모든 은퇴준비 영역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20대는 여가 및 취미활동, 사회관계, 건강의 영역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비중이 높았으며 30대는 일 및 사회활동, 마음의 안정, 재무 영역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전문, 경영, 관리직은 모든 은퇴준비 영역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비중이 높았으나 사무직은 여가 및 취미활동, 일 및 사회활동, 주거환경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노동, 생산, 판매, 서비스직은 모든 은퇴준비 영역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 수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으나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의 비중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게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대학교 재학 및 졸업자의 응답자 수 비중이 높았는데 마음의 안정 영역을 제외한 모든 은퇴준비 영역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의 비중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 이하와 대학원 재학 및 졸업자의 은퇴준비 영역별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응답 분포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 250만 원 이상 ~ 350만 원 미만 집단이 여가 및 취미활동과 마음의 안정 영역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의 비중이 낮은 편이었고 250만 원 미만과 350만 원 이상 집단에서는 대체로 은퇴준비 영역별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예상하는 은퇴시점이 60세 이상일 때 여가 및 취미활동, 마음의 안정, 건강 영역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의 비중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9>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 영역별 필요성 인식 차이 N=540(100%) 단위: N(%)

구분		N	여가·취미		일·사회		사회관계		주거환경		마음의 안정		재무		건강	
필요성 인식		540	필요O	필요X	필요O	필요X	필요O	필요X	필요O	필요X	필요O	필요X	필요O	필요X	필요O	필요X
성별	남성	260	245(47.9)	15(53.6)	244(47.9)	16(51.6)	236(48.8)	24(42.9)	254(48.3)	6(42.9)	242(47.9)	18(51.4)	254(47.7)	6(85.7)	251(47.8)	9(60.0)
	여성	280	267(52.1)	13(46.4)	265(52.1)	15(48.4)	248(51.2)	32(57.1)	272(51.7)	8(57.1)	263(52.1)	17(48.6)	279(52.3)	1(14.3)	274(52.2)	6(40.0)
	k^2	-	.348		.158		.701		.161		.161		4.009		.868	
연령	20대	270	258(50.4)	12(42.9)	253(49.7)	17(54.8)	244(50.4)	26(46.4)	263(50.0)	7(50.0)	252(49.9)	18(51.4)	265(49.7)	5(71.4)	263(50.1)	7(46.7)
	30대	270	254(49.6)	16(57.1)	256(50.3)	14(45.2)	240(49.6)	30(53.6)	263(50.0)	7(50.0)	253(50.1)	17(48.6)	268(50.3)	2(28.6)	262(49.9)	8(53.3)
	k^2	-	.603		.308		.319		.000		.031		1.30		.069	
직업	전문, 경영, 관리직	92	89(17.4)	3(10.7)	88(17.3)	4(12.9)	86(17.8)	6(10.7)	92(17.5)	0(0.00)	90(17.8)	2(5.70)	92(17.3)	0(0.00)	92(17.5)	0(0.00)
	사무직	353	335(65.4)	18(64.3)	335(65.8)	18(58.1)	314(64.9)	39(69.6)	344(65.4)	9(64.3)	330(65.3)	23(65.7)	348(65.3)	5(71.4)	341(65.0)	12(80.0)
	노동, 생산, 판매, 서비스직	95	88(17.2)	7(25.0)	86(16.9)	9(29.0)	84(17.4)	11(19.6)	90(17.1)	5(35.7)	85(16.8)	10(28.6)	93(17.4)	2(28.6)	92(17.5)	3(20.0)
	k^2	-	1.62		3.05		1.79		5.13		5.38		1.73		3.19	
학력	고졸 이하	48	46(9.00)	2(7.10)	43(8.4)	5(16.1)	40(8.30)	8(14.3)	44(8.40)	4(28.6)	44(8.70)	4(11.4)	46(8.60)	2(28.6)	46(8.80)	2(13.3)
	대학교 재학 및 졸업	431	410(80.1)	21(75.0)	407(80.0)	24(77.4)	390(80.6)	41(73.2)	421(80.0)	10(71.4)	403(79.8)	28(80.0)	426(79.9)	5(71.4)	420(80.0)	11(73.3)
	대학원 재학 및 졸업	61	56(10.9)	5(17.9)	59(11.6)	2(6.5)	54(11.2)	7(12.5)	61(11.6)	0(0.00)	58(11.5)	3(8.60)	61(11.4)	0(0.00)	59(11.2)	2(13.3)
	k^2	-	1.31		2.65		2.47		8.01		.518		3.95		.481	
소득	250만 원 미만	203	195(38.1)	8(28.6)	185(36.3)	18(58.1)	177(36.6)	26(46.4)	197(37.5)	6(42.9)	193(38.2)	10(28.6)	199(37.3)	4(57.1)	195(37.1)	8(53.3)
	250만 원 이상 ~ 350만 원 미만	260	242(47.3)	18(64.3)	250(49.1)	10(32.3)	235(48.6)	25(44.6)	255(48.5)	5(35.7)	241(47.7)	19(54.3)	258(48.4)	2(28.6)	254(48.4)	6(40.0)
	350만 원 이상	77	75(14.6)	2(7.10)	74(14.5)	3(9.7)	72(14.9)	5(8.9)	74(14.1)	3(21.4)	71(14.1)	6(17.1)	76(14.3)	1(14.3)	76(14.5)	1(6.7)
	k^2	-	3.29		5.88		2.70		1.09		1.32		1.29		1.85	
예상 은퇴 시점	60세 미만	174	163(31.8)	11(39.3)	162(32.8)	7(22.6)	156(32.2)	18(32.1)	171(32.5)	3(21.4)	160(31.7)	14(40.0)	174(32.6)	0(0.00)	168(32.0)	6(40.0)
	60세 이상	366	349(68.2)	17(60.7)	342(67.2)	24(77.4)	328(67.8)	38(67.9)	355(67.5)	11(78.6)	345(68.3)	21(60.0)	359(67.4)	7(100)	357(68.0)	9(60.0)
	k^2	-	.675		1.40		.000		.767		1.04		3.37		.427	

*p< .05, ** < .01, *** < .001

다음으로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라 은퇴준비 영역별 중요성에 차이가 있는지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소득, 예상 은퇴시점에 따라 t검정과 ANOVA를 실시하였다(표 4-10). 먼저 t검정 결과 성별은 여가 및 취미활동, 가족 및 친구 등 사회관계 영역을 제외하고 일 및 사회활동, 주거환경, 마음의 안정, 재무, 건강에 대한 은퇴준비 영역에서 남녀간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 집단통계량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5가지 영역 모두 남성보다 여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연령에서 20대와 30대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평균으로 비교한 결과 20대는 여가 및 취미활동, 일 및 사회활동, 사회관계, 마음의 안정 영역에서 30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30대는 20대에 비해 비교적 재무적 측면과 관련된 은퇴준비 영역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예상하는 은퇴시점을 60세 전후로 나누었을 때, 예상하는 은퇴시점별 모든 은퇴준비 영역의 중요성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평균값으로 비교해볼 때 마음의 안정과 재무 영역을 제외하고 예상하는 은퇴시점이 60세 이상일 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업, 학력, 소득에 따라 은퇴준비 영역별 중요성에 차이가 있는지 ANOVA를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직업간 은퇴준비 영역별 중요성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 경영, 관리직은 주거환경과 건강 영역, 사무직은 사회관계와 재무적 영역, 노동, 생산, 판매, 서비스직은 여가 및 취미활동과 마음의 안정 영역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학력에 따라서는 재무적 은퇴준비 영역의 중요성에만 차이가 있었으며, 대학원 재학 및 졸업 집단에서 고졸 집단보다 재무적 은퇴준비 영역의 중요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졸 이하 집단과 대학원 재학 및 졸업 집단의 응답자 수가 각각 48명과 61명으로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아 유의한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소득에 따라서는 여가 및 취미 영역과 마음의 안정 영역에서 250만 원 미만 집단이 250만 원 이상 ~ 350만 원 미만 집단보다 중요성 인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 영역별 중요성 인식 차이

N=540(100%) 단위: 점

구분		N	여가 취미	일 사회	사회 관계	주거 환경	마음 안정	재무	건강
성별	남성	260	7.52	7.37	7.62	8.23	8.05	8.48	8.72
	여성	280	7.61	7.80	7.85	8.88	8.55	9.19	9.28
	t	-	-.553	-2.94**	-1.52	-4.88***	-3.36***	-5.47***	-4.52***
연령	20대	270	7.58	7.60	7.74	8.56	8.35	8.82	9.00
	30대	270	7.56	6.58	7.73	8.57	8.27	8.88	9.01
	t	-	.117	.100	.024	-.055	.547	-.420	-.089
직업	전문, 경영, 관리직	92	7.58	7.59	7.70	8.73	8.33	8.89	9.16
	사무직	353	7.56	7.59	7.76	8.59	8.28	8.91	9.02
	노동, 생산, 판매, 서비스직	95	7.61	7.59	7.68	8.32	8.42	8.58	8.83
	F	-	.035	.000	.095	1.76	.261	1.81	1.24
학력	고졸 이하	48	7.65	7.85	7.60	8.31	8.50	8.35b	8.81
	대학교 재학 및 졸업	431	7.57	7.53	7.73	8.56	8.33	8.85ab	9.02
	대학원 재학 및 졸업	61	7.49	7.82	7.90	8.84	8.05	9.21a	9.11
	F	-	.096	1.41	.407	1.55	1.00	4.25*	.608
소득	250만 원 미만	203	7.80a	7.75	7.76	8.69	8.58a	8.83	9.08
	250만 원 이상 ~ 350만 원 미만	260	7.37b	7.46	7.66	8.50	8.14b	8.87	8.95
	350만 원 이상	77	7.61ab	7.58	7.92	8.47	8.18ab	8.84	9.03
	F	-	3.17*	1.66	.673	1.02	3.88*	.027	.455
예상 은퇴 시점	60세 미만	174	7.47	7.45	7.57	8.53	8.32	8.94	9.01
	60세 이상	366	7.62	7.65	7.81	8.58	8.31	8.81	9.01
	t	-	-.898	-1.26	-1.46	-.329	.046	.965	-.039

*p< .05, ** < .01, *** < .001

2.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 역량의 차이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 역량 수준의 차이는 다음 <표 4-11>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은퇴준비 기능이, 여성은 은퇴준비 지식이 더 잘 갖추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로 나누었을 때 같은 사회초년생일지라도 20대보다 30대에 은퇴준비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으로서의 사회경험은 유사하나 대부분 20대의 사회초년생은 고졸이거나 대학 재학 및 졸업직후일 가능성이 높아 은퇴준비를 대하는 태도 측면이 30대에서 더욱 우수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의 경우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은퇴준비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직업의 경우 전문, 경영, 관리직은 은퇴준비 태도와 기능이, 사무직은 은퇴준비 지식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은퇴준비 역량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의 경우 은퇴준비 지식은 소득이 낮을수록 은퇴준비 기능은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예상하는 은퇴시점이 60세 미만인 경우에 은퇴준비 역량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표 4-11>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 역량의 차이

N=540(100%)

구분		N(%)	은퇴준비 역량(단위: 점)		
			은퇴준비 지식	은퇴준비 태도	은퇴준비 기능
		540	71.3	52.8	54.2
성별	남성	260	68.8	52.5	58.3
	여성	280	73.7	53.0	50.3
	t	-	-2.62**	-.254	5.44***
연령	20대	270	70.7	50.6	54.6
	30대	270	71.9	55.0	53.7
	t	-	-.653	-2.30*	.623
직업	전문, 경영, 관리직	92	69.3	54.1	54.4
	사무직	353	72.0	52.5	54.1
	노동, 생산, 판매, 서비스직	95	71.1	52.5	54.0
	F	-	.570	.180	.010
학력	고졸 이하	48	69.3	52.6	54.5
	대학교 재학 및 졸업	431	71.2	52.2	53.9
	대학원 재학 및 졸업	61	73.8	57.2	55.4
	F	-	.620	1.33	.190
소득	250만 원 미만	203	71.6	50.7b	53.0
	250만 원 이상 ~ 350만 원 미만	260	71.5	52.8ab	54.1
	350만 원 이상	77	70.1	58.4a	57.5
	F	-	.140	3.41*	1.78
예상 은퇴 시점	60세 미만	174	71.6	53.6	54.9
	60세 이상	366	71.2	52.4	53.8
	t	-	.156	.568	.694

*p< .05, ** < .01, *** < .001

3.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 실태의 차이

다음으로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라 은퇴준비 영역별 실태에 차이가 있는지 t검정과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4-12>와 같다. t검정 결과 성별은 일 및 사회활동, 주거환경, 마음의 안정 영역의 은퇴준비 실태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연령과 예상 은퇴시점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연령의 경우 대체로 20대와 30대의 은퇴준비 영역별 실태가 유사한 반면, 주거환경 영역의 실태만이 20대보다 30대의 실태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은퇴시점을 60세 이상으로 예상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건강 영역을 제외하고 실태가 높게 나타났다.

ANOVA를 실시한 결과 학력에 따라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대학원 이상 집단이 미만 집단보다 은퇴준비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재무적 영역에서는 고졸 이하 집단이 대학 재학 이상 집단보다 은퇴준비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대학원 이상 집단에서 은퇴준비 영역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 마음의 안정 영역에서는 350만 원 미만과 이상 집단, 재무와 건강 영역에서는 250만 원 미만과 이상 집단으로 나뉘어 소득이 높을수록 해당 영역에서 은퇴준비를 실제로 하고 있는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모든 은퇴준비 영역의 실제 준비수준이 높았다. 직업의 경우 모든 은퇴준비의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전문, 경영, 관리직인 경우 은퇴준비 실태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무직인 경우 주거환경 및 건강 영역의 은퇴준비 수준이 다른 직업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12>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 실태의 차이

N=540(100%) 단위: 점

구분		N	여가 취미	일 사회	사회 관계	주거 환경	마음 안정	재무	건강
성별	남성	260	3.79	3.65	3.76	3.37	3.63	3.84	3.97
	여성	280	3.69	3.45	3.73	3.06	3.43	3.68	3.89
	t	540	1.41	2.47*	.409	3.40**	2.86**	2.00	1.21
연령	20대	270	3.74	3.56	3.75	3.15	3.56	3.82	3.93
	30대	270	3.74	3.53	3.73	3.27	3.49	3.69	3.93
	t	540	.000	.410	.260	-1.30	1.01	1.60	.000
직업	전문, 경영, 관리직	92	3.76	3.60	3.90	3.15	3.65	3.86	3.92
	사무직	353	3.74	3.52	3.69	3.22	3.53	3.78	3.95
	노동, 생산, 판매, 서비스직	95	3.72	3.58	3.78	3.21	3.40	3.55	3.85
	F	540	.061	.291	2.51	.157	2.04	2.87	.508
학력	고졸 이하	48	3.69	3.42	3.58b	3.25	3.56	3.52b	3.83
	대학교 재학 및 졸업	431	3.72	3.55	3.72b	3.20	3.50	3.74a	3.93
	대학원 재학 및 졸업	61	3.87	3.64	4.03a	3.26	3.66	4.02a	4.00
	F	540	.809	.749	4.91**	.131	.894	3.66*	.579
소득	250만 원 미만	203	3.76	3.50	3.74	3.11	3.46b	3.60b	3.79b
	250만 원 이상 ~ 350만 원 미만	260	3.72	3.55	3.69	3.22	3.50b	3.83a	4.00a
	350만 원 이상	77	3.74	3.64	3.92	3.43	3.79a	3.91a	4.01a
	F	-	.115	.577	2.39	2.46	4.49*	4.61*	4.52*
예상 은퇴 시점	60세 미만	174	3.70	3.44	3.74	3.16	3.50	3.75	3.95
	60세 이상	366	3.75	3.60	3.74	3.23	3.54	3.76	3.91
	t	-	-.654	-1.86	-.024	-.794	-.485	-.044	.561

*p< .05, ** < .01, *** < .001

4. 소결

본 절에서는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월평균 소득, 예상 은퇴시점의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라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 인식, 역량, 실태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라 여성은 남성보다 여가 및 취미활동과 사회관계 영역을 제외하고 은퇴준비 영역별로 더 중요하게 인식하며 은퇴준비 지식의 역량은 더 높았으나, 이미 은퇴준비를 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는 경우가 낮고 은퇴준비 기능의 역량과 일 및 사회활동, 주거환경, 마음의 안정 영역의 은퇴준비에 있어 실제로 은퇴준비를 하고 있는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재무 영역의 중요성 인식과 은퇴준비를 실제로 하고 있는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관계 영역의 은퇴준비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여가 및 취미활동과 마음의 안정 영역을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은퇴준비 태도의 역량과 마음의 안정, 재무, 건강의 영역에서 실제로 은퇴준비를 하고 있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라 은퇴준비 인식, 역량, 실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성별, 학력, 소득의 경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높은 반면 다른 비교집단에 비해 은퇴준비 기능의 역량과 은퇴준비를 실제로 하고 있는 수준이 낮게 나타나 인식, 역량, 실태간 괴리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모든 은퇴준비 영역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요성 인식에는 은퇴준비 영역별 상이하게 나타났다.

제 3 절 은퇴준비 영역별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 역량, 인식 및 실태 간의 관계

본 절에서는 은퇴준비 역량(지식, 태도, 기능)이 은퇴준비 영역별 인식(필요성, 중요성)을 매개하여 은퇴준비 영역별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통제변수는 성별(여성 기준), 연령대(30대 기준), 직업(대학교 재학 및 졸업 기준), 소득(250만 원 이상 ~ 350만 원 미만), 예상 은퇴시점(60세 이상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부트스트랩 샘플 수를 5,000으로 지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은퇴준비 역량이 은퇴준비 실태로 이어지는 1단계 모형, 은퇴준비 역량이 은퇴준비 영역별 필요성 인식으로 이어지는 2단계 모형, 은퇴준비 역량이 은퇴준비 영역별 중요성 인식으로 이어지는 3단계 모형, 은퇴준비 역량과 은퇴준비 영역별 인식이 은퇴준비 영역별 실태로 이어지는 4단계 모형, 총 4단계의 모형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분석결과 은퇴준비 영역별 필요성 인식은 모든 영역에서 9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 은퇴준비 역량 및 실태와의 관계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본 절에서는 은퇴준비 영역별 중요성 인식(이하 “지각된 중요성”)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1, 3, 4단계 모형에서의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여가 및 취미활동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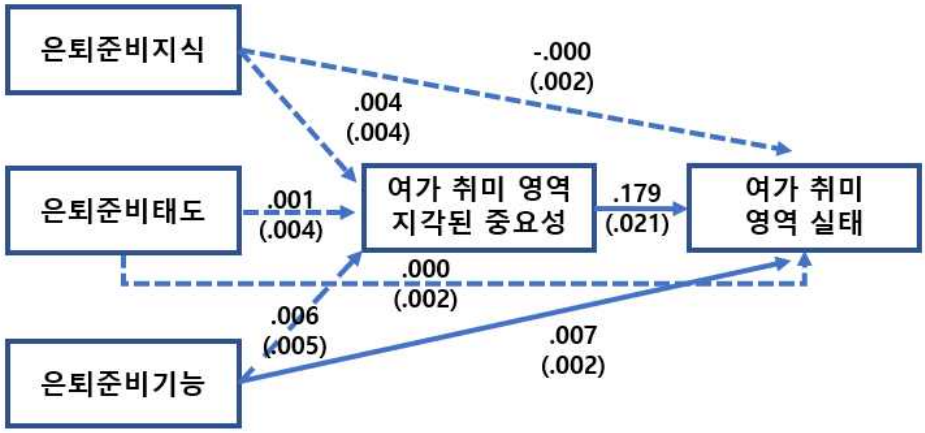
먼저 여가 및 취미활동 영역의 은퇴준비에 대한 분석 결과, 각 단계별 F값이 1단계(은퇴준비 역량→은퇴준비 실태)에서 1.67, 2단계(은퇴준비 역량→은퇴준비 필요성 인식)에서 .965, 3단계(은퇴준비 역량→지각된 중요성)에서 .887, 4단계(은퇴준비 역량과 인식→은퇴준비 실태)에서 7.61로 나타났으며, F검정을 통한 모형의 유의성 검정 결과 $p<.05$수준으로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이 1단계에서 .037, 2단계에서 .022, 3단계에서 .020, 4단계에서 .169로 나타났다. 여가 및 취미활동 영역 은퇴준비의 직·간접효과와 총효과는 <표 4-13>과 <그림 4-2>에 제시하였다. 은퇴준비 지식, 태도, 기능의 모든 역량이 지각된 중요성의 인식으로 이어지지 못해 간접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은퇴준비 기능의 역량과 여가 및 취미활동 영역에 대한 지각된 중요성의 인식은 여가 및 취미활동 영역의 은퇴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여가 및 취미활동 영역의 은퇴준비에 있어 은퇴준비 기능의 역량과 여가 및 취미활동 은퇴준비 영역에 대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표 4-13> 여가 및 취미활동 영역 은퇴준비의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N=540(100%)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은퇴준비지식 → 지각된 중요성	.004	-	.004
은퇴준비태도 → 지각된 중요성	.001	-	.001
은퇴준비기능 → 지각된 중요성	.006	-	.006
지각된 중요성 → 은퇴준비실태	.179***	-	.175
은퇴준비지식 → 지각된 중요성 → 은퇴준비실태	-.000	.001	.000
은퇴준비태도 → 지각된 중요성 → 은퇴준비실태	.000	.000	.000
은퇴준비기능 → 지각된 중요성 → 은퇴준비실태	.007***	.001	.009

*p< .05, ** < .01, *** < .001



<그림 4-2> 여가 및 취미 활동 영역 은퇴준비의 경로분석 결과

2. 일 및 사회활동 영역

다음으로 일 및 사회활동 영역의 은퇴준비에 대한 분석 결과, 각 단계별 F값이 1단계(은퇴준비 역량→은퇴준비 실태)에서 6.30, 2단계(은퇴준비 역량→은퇴준비 필요성 인식)에서 .953, 3단계(은퇴준비 역량→지각된 중요성)에서 2.47, 4단계(은퇴준비 역량과 지각된 중요성→은퇴준비 실태)에서 6.99로 나타났으며, F검정을 통한 모형의 유의성 검정 결과 $p<.05$수준으로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이 1단계에서 .125, 2단계에서 .021, 2단계에서 .053, 3단계에서 .157로 나타났다. 일 및 사회활동 영역 은퇴준비의 직·간접효과와 총효과는 <표 4-14>과 <그림 4-3>에 제시하였다.

은퇴준비 지식의 역량은 일 및 사회활동 영역의 지각된 중요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 일 및 사회활동 영역의 은퇴준비 실태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한편 일 및 사회활동 영역의 지각된 중요성은 은퇴준비 실태로 이어지므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과 Sobel test 검정 결과 Z통계량이 1.96 이상일 때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지각된 중요성을 매개로 일 및 사회활동 영역 은퇴준비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은퇴준비 지식의 Z통계량은 1.84로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준비 태도의 역량은 일 및 사회활동 영역의 지각된 중요성과 실태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은퇴준비 기능의 역량은 일 및 사회활동 영역의 지각된 중요성과 실태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때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한 Z통계량은 2.18로 나타나 간접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일 및 사회활동 영역의 지각된 중요성이 은퇴준비 기능의 역량에 따른 은퇴준비 실태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따라서 일 및 사회활동 영역의 지각된 중요성에는 은퇴준비 지식과 기능의 역량이, 일 및 사회활동 영역의 은퇴준비에는 은퇴준비 기능의 역량과 지각된 중요성이 정적(+) 영향을 미쳤다. 지각된 중요성을 매개로 한 은퇴준비 지식의 완전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은퇴준비 기능의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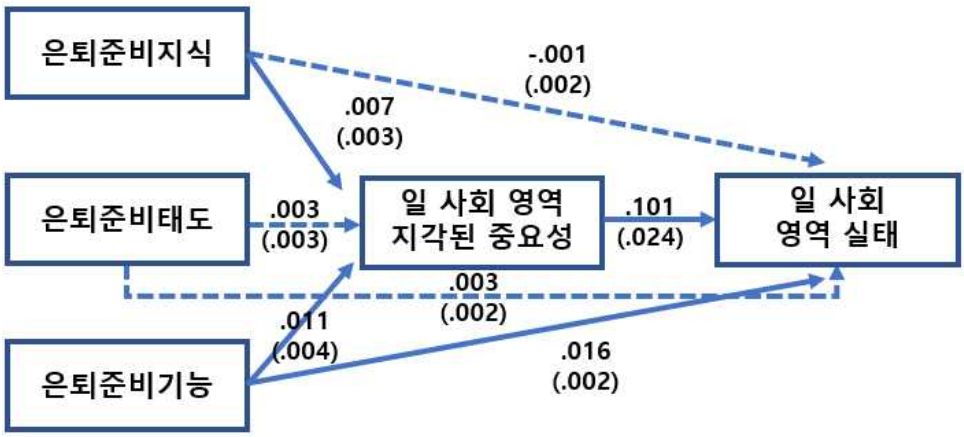
접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은퇴준비 기능의 역량이 높을수록, 일 및 사회활동 영역에 대한 지각된 중요성이 높을수록 일 및 사회활동 영역의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은퇴준비 기능의 역량과 일 및 사회활동 영역의 은퇴준비 실태간에 지각된 중요성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 및 사회활동 영역의 은퇴준비에 해당 영역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14> 일 및 사회활동 영역 은퇴준비의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N=540(100%)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은퇴준비지식 → 지각된 중요성	.007*	-	.007
은퇴준비태도 → 지각된 중요성	.003	-	.003
은퇴준비기능 → 지각된 중요성	.011*	-	.011
지각된 중요성 → 은퇴준비실태	.101***	-	.101
은퇴준비지식 → 지각된 중요성 → 은퇴준비실태	-.001	.001	-.000
은퇴준비태도 → 지각된 중요성 → 은퇴준비실태	.003	.000	.003
은퇴준비기능 → 지각된 중요성 → 은퇴준비실태	.016***	.001***	.017

*p< .05, ** < .01, *** < .001



<그림 4-3> 일 및 사회활동 영역 은퇴준비의 경로분석 결과

3. 사회관계 영역

사회관계 영역의 은퇴준비에 대한 분석 결과, 각 단계별 F값이 1단계(은퇴준비 역량→은퇴준비 실태)에서 3.82, 2단계(은퇴준비 역량→은퇴준비 필요성 인식)에서 1.16, 3단계(은퇴준비 역량→지각된 중요성)에서 2.02, 4단계(은퇴준비 역량과 지각된 중요성→은퇴준비 실태)에서 10.9로 나타났으며, F검정을 통한 모형의 유의성 검정 결과 $p<.05$수준으로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이 1단계에서 .080, 2단계에서 .026, 3단계에서 .044, 4단계에서 .225로 나타났다. 사회관계 영역 은퇴준비의 직·간접효과와 총효과는 <표 4-15>과 <그림 4-4>에 제시하였다.

은퇴준비 지식의 역량은 사회관계 영역의 지각된 중요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관계 영역의 은퇴준비 실태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한편 사회관계 영역의 지각된 중요성은 은퇴준비 실태로 이어지므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과 Sobel test 검정 결과 Z통계량이 1.96 이상일 때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지각된 중요성을 매개로 사회관계 영역의 은퇴준비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은퇴준비 지식의 Z통계량은 1.94로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준비 태도의 역량 또한 사회관계 영역의 지각된 중요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관계 영역의 은퇴준비 실태로 이어지지 못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Z통계량이 2.18로 나타나 간접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은퇴준비 기능의 역량은 사회관계 영역의 지각된 중요성과 실태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때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한 Z통계량은 2.04로 나타나 간접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사회관계 영역의 지각된 중요성이 은퇴준비 태도의 역량에 따른 은퇴준비 실태간의 관계는 완전 매개하였고, 은퇴준비 기능의 역량에 따른 은퇴준비 실태간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따라서 사회관계 영역의 지각된 중요성에는 모든 은퇴준비의 역량이, 사회관계 영역의 은퇴준비에는 은퇴준비 기능의 역량과 지각된 중요성이 정적(+) 영향을 미쳤다. 지각된 중요성을 매개로 한 은퇴준비 지식의 완전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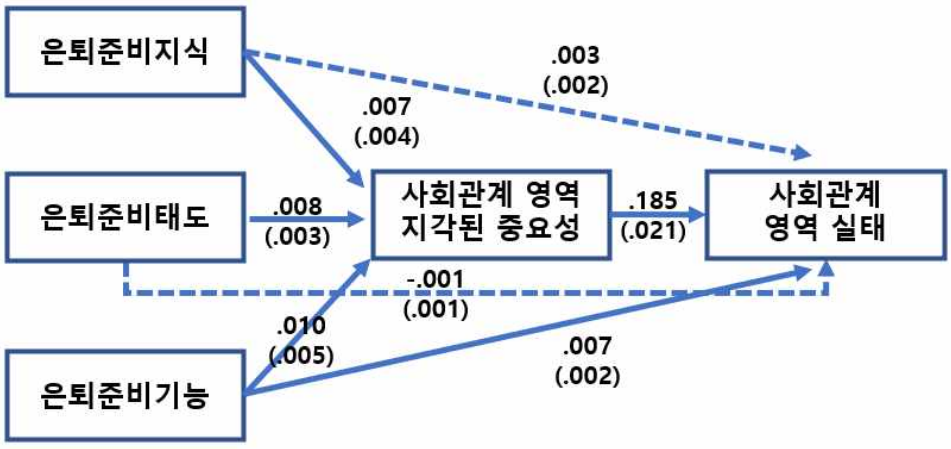
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은퇴준비 태도의 완전매개효과와 은퇴준비 기능의 간접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은퇴준비 기능의 역량이 높을수록, 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지각된 중요성이 높을수록 사회관계 영역의 은퇴준비 실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은퇴준비 태도 및 기능의 역량과 사회관계 영역의 은퇴준비 실태간에 지각된 중요성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관계 영역의 은퇴준비에 해당 영역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15> 사회관계 영역 은퇴준비의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N=540(100%)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은퇴준비지식 → 지각된 중요성	.007*	-	.007
은퇴준비태도 → 지각된 중요성	.008*	-	.008
은퇴준비기능 → 지각된 중요성	.010*	-	.010
지각된 중요성 → 은퇴준비실태	.185***	-	.185
은퇴준비지식 → 지각된 중요성 → 은퇴준비실태	.003	.001	.004
은퇴준비태도 → 지각된 중요성 → 은퇴준비실태	-.001	.001***	.000
은퇴준비기능 → 지각된 중요성 → 은퇴준비실태	.007***	.002***	.009

*p< .05, ** < .01, *** < .001



<그림 4-4> 사회관계 영역 은퇴준비의 경로분석 결과

4. 주거환경 영역

주거환경 영역의 은퇴준비에 대한 분석 결과, 각 단계별 F값이 1단계(은퇴준비 역량→은퇴준비 실태)에서 13.3, 2단계(은퇴준비 역량→은퇴준비 필요성 인식)에서 1.21, 3단계(은퇴준비 역량→지각된 중요성)에서 5.15, 4단계(은퇴준비 역량과 지각된 중요성→은퇴준비 실태)에서 11.7로 나타났으며, F검정을 통한 모형의 유의성 검정 결과 $p<.05$수준으로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이 1단계에서 .233, 2단계에서 .027, 3단계에서 .105, 4단계에서 .238로 나타났다. 주거환경 영역 은퇴준비의 직·간접효과와 총효과는 <표 4-16>과 <그림 4-5>에 제시하였다.

주거환경 영역의 은퇴준비는 다른 은퇴준비 영역과 다르게 주거환경 영역의 지각된 중요성의 인식이 높아도 실제 은퇴준비로 이어지지 못해 은퇴준비 역량과 주거환경 영역의 은퇴준비 실태간 주거환경 영역의 지각된 중요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은퇴준비 지식의 역량은 주거환경 영역의 실태로 이어지지 못하였지만 주거환경 영역의 지각된 중요성에는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은퇴준비 태도의 역량은 주거환경 영역의 지각된 중요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주거환경 영역의 은퇴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은퇴준비 기능의 역량은 주거환경 영역의 지각된 중요성과 실태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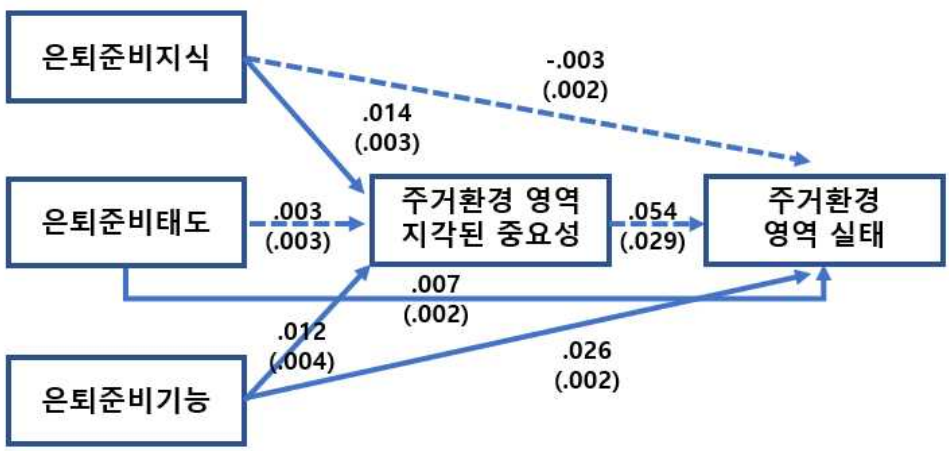
따라서 주거환경 영역의 지각된 중요성에는 은퇴준비 지식과 기능의 역량이, 주거환경 영역의 은퇴준비에는 은퇴준비 태도와 기능의 역량이 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편 주거환경 영역은 다른 은퇴준비 영역과 달리 주거환경 영역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할지라도 실제 은퇴준비로는 이어지지 못해 주거환경 영역에 대한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에 있어 인식과 실태간에 괴리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은퇴준비 태도와 기능의 역량이 주거환경 영역의 은퇴준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의 주거환경 영역에 대한 은퇴준비를 위해 은퇴준비 역량을 증진해야 하며, 사회초년생들이 주거환경 영역의 중요성을 인식할지라도 실제 은퇴준비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4-16> 주거환경 영역 은퇴준비의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N=540(100%)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은퇴준비지식 → 지각된 중요성	.014***	-	.014
은퇴준비태도 → 지각된 중요성	.003	-	.003
은퇴준비기능 → 지각된 중요성	.012**	-	.012
지각된 중요성 → 은퇴준비실태	.054	-	.054
은퇴준비지식 → 지각된 중요성 → 은퇴준비실태	-.003	.001	-.002
은퇴준비태도 → 지각된 중요성 → 은퇴준비실태	.007***	.000	.007
은퇴준비기능 → 지각된 중요성 → 은퇴준비실태	.026***	.001	.027

*p< .05, ** < .01, *** < .001



<그림 4-5> 주거환경 영역 은퇴준비의 경로분석 결과

5. 마음의 안정 영역

마음의 안정 영역의 은퇴준비에 대한 분석 결과, 각 단계별 F값이 1단계(은퇴준비 역량→은퇴준비 실태)에서 13.1, 2단계(은퇴준비 역량→은퇴준비 필요성 인식)에서 .764, 3단계(은퇴준비 역량→지각된 중요성)에서 2.50, 4단계(은퇴준비 역량과 지각된 중요성→은퇴준비 실태)에서 13.0으로 나타났으며, F검정을 통한 모형의 유의성 검정 결과 $p<.05$수준으로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이 1단계에서 .023, 2단계에서 .017, 3단계에서 .054, 4단계에서 .257로 나타났다. 마음의 안정 영역 은퇴준비의 직·간접효과와 총효과는 <표 4-17>과 <그림 4-6>에 제시하였다.

은퇴준비 지식의 역량은 마음의 안정 영역의 지각된 중요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마음의 안정 영역의 은퇴준비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한편 마음의 안정 영역의 지각된 중요성은 은퇴준비로 이어지므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과 Sobel test 검정 결과 Z통계량이 1.96 이상일 때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지각된 중요성을 매개로 마음의 안정 영역의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은퇴준비 지식의 Z통계량은 1.95로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준비 태도와 기능의 역량은 마음의 안정 영역의 지각된 중요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마음의 안정 영역의 은퇴준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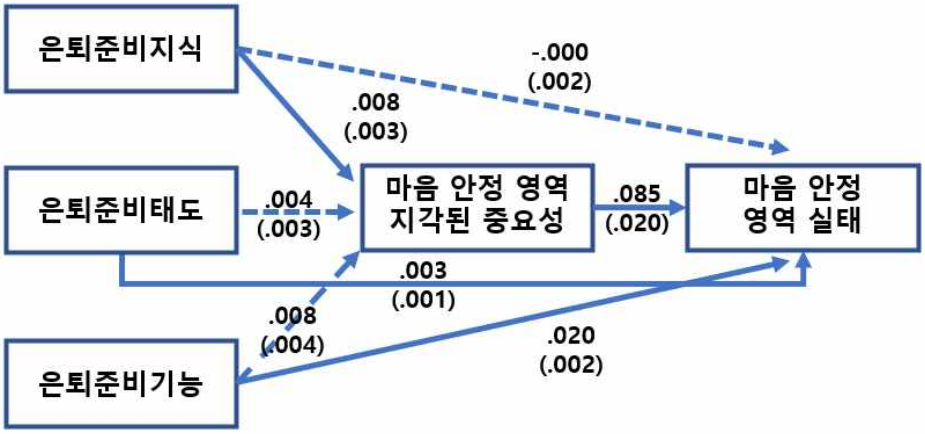
따라서 마음의 안정 영역의 지각된 중요성에는 모든 은퇴준비 지식의 역량이, 마음의 안정 영역의 은퇴준비에는 은퇴준비 태도와 기능의 역량 및 지각된 중요성이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지각된 중요성을 매개로 한 은퇴준비 지식의 완전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로써 은퇴준비 태도와 기능의 역량이 높을수록, 마음의 안정 영역에 대한 지각된 중요성이 높을수록 마음의 안정 영역의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4-17> 마음의 안정 영역 은퇴준비의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N=540(100%)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은퇴준비지식 → 지각된 중요성	.008*	-	.008
은퇴준비태도 → 지각된 중요성	.004	-	.004
은퇴준비기능 → 지각된 중요성	.008	-	.008
지각된 중요성 → 은퇴준비실태	.085***	-	.085
은퇴준비지식 → 지각된 중요성 → 은퇴준비실태	-.000	.001	.000
은퇴준비태도 → 지각된 중요성 → 은퇴준비실태	.003*	.000	.003
은퇴준비기능 → 지각된 중요성 → 은퇴준비실태	.020***	.001	.021

*p< .05, ** < .01, *** < .001



<그림 4-6> 마음의 안정 영역 은퇴준비의 경로분석 결과

6. 재무 영역

재무 영역의 은퇴준비에 대한 분석 결과, 각 단계별 F값이 1단계(은퇴준비 역량→은퇴준비 실태)에서 16.1, 2단계(은퇴준비 역량→은퇴준비 필요성 인식)에서 1.37, 3단계(은퇴준비 역량→지각된 중요성)에서 5.66, 4단계(은퇴준비 역량과 지각된 중요성→은퇴준비 실태)에서 16.8로 나타났으며, F검정을 통한 모형의 유의성 검정 결과 p<.05수준으로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이 1단계에서 .197, 2단계에서 .026, 3단계에서 .343, 3단계에서 .468로 나타났다. 재무 영역 은퇴준비의 직·간접효과와 총효과는 <표 4-18>과 <그림 4-7>에 제시하였다.

은퇴준비 지식의 역량은 재무 영역의 지각된 중요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재무 영역의 은퇴준비 실태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한편 재무 영역의 지각된 중요성은 은퇴준비 실태로 이어지므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과 Sobel test 검정 결과 Z통계량이 1.96 이상일 때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지각된 중요성을 매개로 재무 영역의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은퇴준비 지식의 Z통계량은 3.57로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준비 태도의 역량은 재무 영역의 지각된 중요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재무 영역의 은퇴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은퇴준비 기능의 역량은 재무 영역의 지각된 중요성과 은퇴준비 실태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때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한 Z통계량은 5.03으로 나타나 간접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재무 영역의 지각된 중요성이 은퇴준비 지식의 역량에 따른 은퇴준비 실태간의 관계는 완전 매개하였고, 은퇴준비 기능의 역량에 따른 은퇴준비 실태간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따라서 재무 영역의 지각된 중요성에는 은퇴준비 지식과 기능의 역량이, 재무 영역의 은퇴준비에는 은퇴준비 태도와 기능의 역량 및 지각된 중요성이 정적(+) 영향을 미쳤다. 지각된 중요성을 매개로 한 은퇴준비 지식의 완전매개효과와 은퇴준비 기능의 간접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은퇴준비 태도와 기능의 역량이 높을수록, 재무 영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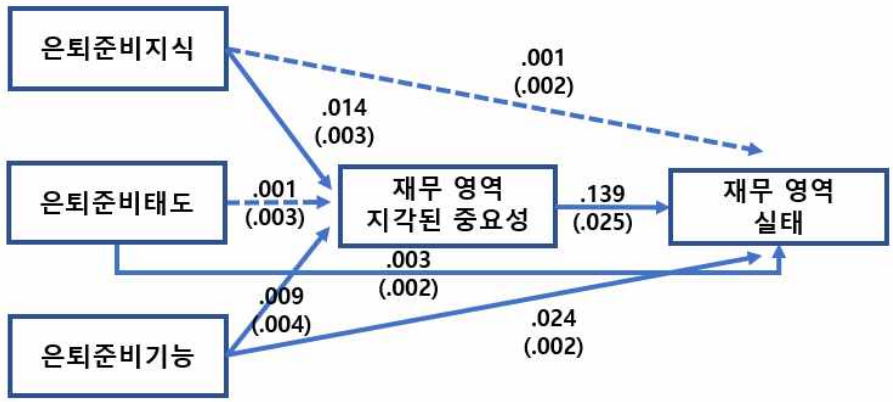
대한 지각된 중요성이 높을수록 재무 영역의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은퇴준비 지식의 역량에 따른 재무 영역의 은퇴준비는 직접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재무 영역에 대한 지각된 중요성을 통하여 은퇴준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은퇴준비 기능의 역량과 재무 영역의 은퇴준비 실태간에 지각된 중요성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도 존재하기 때문에 재무 영역의 은퇴준비에 해당 영역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18> 재무 영역 은퇴준비의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N=540(100%)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은퇴준비지식 → 지각된 중요성	.014***	-	.014
은퇴준비태도 → 지각된 중요성	.001	-	.001
은퇴준비기능 → 지각된 중요성	.009*	-	.009
지각된 중요성 → 은퇴준비실태	.139***	-	.139
은퇴준비지식 → 지각된 중요성 → 은퇴준비실태	.001	.002***	.003
은퇴준비태도 → 지각된 중요성 → 은퇴준비실태	.003*	.000	.003
은퇴준비기능 → 지각된 중요성 → 은퇴준비실태	.024***	.001***	.026

*p< .05, ** < .01, *** < .001



<그림 4-7> 재무 영역 은퇴준비의 경로분석 결과

7. 건강 영역

건강 영역의 은퇴준비에 대한 분석 결과, 각 단계별 F값이 1단계(은퇴준비 역량→은퇴준비 실태)에서 4.49, 2단계(은퇴준비 역량→은퇴준비 필요성 인식)에서 .887, 3단계(은퇴준비 역량→지각된 중요성)에서 4.40, 4단계(은퇴준비 역량과 지각된 중요성→은퇴준비 실태)에서 9.11로 나타났으며, F검정을 통한 모형의 유의성 검정 결과 $p<.05$수준으로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이 1단계에서 .093, 2단계에서 .020, 3단계에서 .091, 4단계에서 .195로 나타났다. 건강 영역 은퇴준비의 직·간접효과와 총효과는 <표 4-19>과 <그림 4-8>에 제시하였다.

은퇴준비 지식의 역량은 건강 영역의 지각된 중요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건강 영역의 은퇴준비 실태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한편 건강 영역의 지각된 중요성은 은퇴준비 실태로 이어지므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과 Sobel test 검정 결과, Z통계량이 1.96 이상일 때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지각된 중요성을 매개로 건강 영역의 은퇴준비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은퇴준비 지식의 Z통계량은 4.12로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 영역의 지각된 중요성이 은퇴준비 지식의 역량에 따른 은퇴준비 실태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은퇴준비 태도의 역량은 건강 영역의 지각된 중요성과 은퇴준비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은퇴준비 기능의 역량은 건강 영역의 은퇴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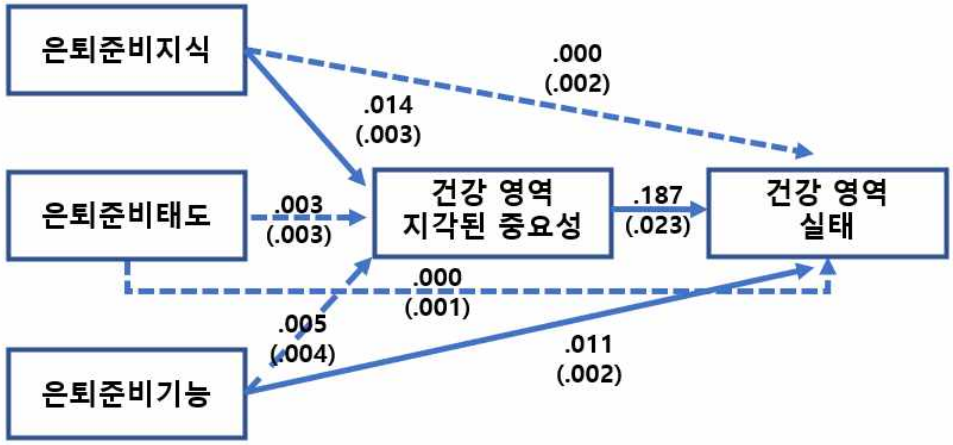
따라서 건강 영역의 지각된 중요성에는 은퇴준비 지식의 역량이, 건강 영역의 은퇴준비에는 은퇴준비 기능의 역량과 지각된 중요성이 정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은퇴준비 기능의 역량이 높을수록, 건강 영역에 대한 지각된 중요성이 높을수록 건강 영역의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은퇴준비 지식의 역량에 따른 건강 영역의 은퇴준비는 직접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건강 영역에 대한 지각된 중요성을 통하여 은퇴준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 영역의 은퇴준비에 해당 영역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19> 건강 영역 은퇴준비의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N=540(100%)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은퇴준비지식 → 지각된 중요성	.014***	-	.014
은퇴준비태도 → 지각된 중요성	.003	-	.003
은퇴준비기능 → 지각된 중요성	.005	-	.005
지각된 중요성 → 은퇴준비실태	.187***	-	.187
은퇴준비지식 → 지각된 중요성 → 은퇴준비실태	.000	.003***	.003
은퇴준비태도 → 지각된 중요성 → 은퇴준비실태	.000	.001	.001
은퇴준비기능 → 지각된 중요성 → 은퇴준비실태	.011***	.001	.012

*p< .05, ** < .01, *** < .001



<그림 4-8> 건강 영역 은퇴준비의 경로분석 결과

8. 소결

본 절에서는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 영역별 실태와 은퇴준비 역량 및 지각된 중요성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연구결과 은퇴준비 영역을 기준으로 일 및 사회활동, 사회관계, 재무 영역을 묶은 사회경제적 측면, 여가 및 취미활동, 마음의 안정, 건강 영역을 묶은 넓은 의미의 건강 측면, 그리고 주거환경 측면의 총 3가지로 구분되었다.

먼저 일 및 사회활동, 사회관계, 재무 영역, 즉 사회경제적 측면의 3가지 은퇴준비 영역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측면의 은퇴준비 영역에서 은퇴준비지식의 역량은 직접 은퇴준비 실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지각된 중요성에는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은퇴준비기능의 역량은 영역별 지각된 중요성을 통해 실태에 부분매개효과를 가져, 사회경제적 측면의 은퇴준비 역량이 증진되고 해당 은퇴준비 영역을 중요하게 인식하면 은퇴준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재무 영역의 은퇴준비는 은퇴준비 지식의 역량이 지각된 중요성을 매개로 완전매개효과를 보여, 특히 재무 영역은 은퇴준비 지식, 태도, 기능의 역량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은퇴준비로 이어져야 할 필요성을 밝혔다. 한편 은퇴준비 태도의 역량은 사회관계 영역의 은퇴준비 실태에 완전매개효과를 보이고 재무 영역은 지각된 중요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은퇴준비 실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은퇴준비 태도의 역량은 은퇴준비 영역별로 상이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여가 및 취미활동, 마음의 안정, 건강 영역, 즉 넓은 의미의 건강 측면의 3가지 은퇴준비 영역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은퇴준비기능의 역량과 지각된 중요성이 은퇴준비 실태에 영향을 미쳤으나 지각된 중요성을 통한 매개효과를 보이지는 못하였다. 이는 건강 측면의 은퇴준비 영역에서 은퇴준비기능의 역량과 지각된 중요성이 각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특히 건강 영역은 은퇴준비지식의 역량이 지각된 중요성을 매개로 은퇴준비 실태에 완전매개효과를 보여, 은퇴준비지식이 직접 은퇴준비실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인식을 증진시켜 은퇴준비실

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 영역은 은퇴준비 지식과 기능의 역량이 지각된 중요성에 영향을 미쳤고 은퇴준비 태도와 기능의 역량이 실태에 영향을 미쳤으나 다른 은퇴준비 영역과 달리 유일하게 지각된 중요성이 실태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해당 영역을 중요하게 인식할지라도 실태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앞서 주거환경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태가 미비하였고 편차가 가장 컸기 때문에 다른 영역과 구분되는 특징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사회초년생에게 필요한 은퇴준비에 있어 특히 주거환경 영역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영역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은퇴준비역량인 지식, 태도, 기능의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은퇴준비지식의 역량은 주로 지각된 중요성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 은퇴준비 실태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은퇴준비태도의 역량은 사회관계 영역을 제외하고 지각된 중요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은퇴준비기능의 역량은 은퇴준비 실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은퇴준비지식의 역량은 단독으로 실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은퇴준비 영역별 지각된 중요성에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역량과 함께 은퇴준비로 이어져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은퇴준비태도의 역량은 대부분 은퇴준비 영역별 지각된 중요성으로 이어지지 못해, 은퇴준비 지식, 태도, 기능의 역량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인식과 실제 은퇴준비 수준을 증진시켜야 함을 시사하였다.

종합하면 은퇴준비 역량, 지각된 중요성, 은퇴준비 실태간의 구조적 관계에 있어 은퇴준비 영역별로 사회경제적 측면, 넓은 의미의 건강 측면, 주거환경 측면으로 나뉘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은퇴준비 지식의 역량은 은퇴준비 실태에 단독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지각된 중요성에 영향을 주거나 이를 매개하여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과 함께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은퇴준비지식이 지각된 중요성을 통해 실태에 미치는 완전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영역은 재무와 건강 영역으로, 앞서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게 인

식하던 영역에서 완전매개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은퇴준비지식은 인식에 영향을 주는 반면, 은퇴준비 태도의 역량은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은퇴준비지식은 실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은퇴준비 태도와 기능의 역량은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은퇴준비 지식, 태도, 기능의 역량이 종합적으로 은퇴준비 실태로 이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은퇴준비 역량과 지각된 중요성, 은퇴준비 실태 모두 영역별로 상이한 관계를 보였기 때문에, 필요한 은퇴준비 영역별로 사회초년생에게 은퇴준비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효과적으로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표 4-20> 은퇴준비 영역별 직·간접효과 요약

	직접효과				간접효과		
	지식 →인식	태도 →인식	기능 →인식	인식 →실태	지식 →실태	태도 →실태	기능 →실태
여가·취미				+			
일·사회	+		+	+			+
사회관계	+	+	+	+		+	+
주거환경	+		+				
마음안정	+			+			
재무	+		+	+	+		+
건강	+			+	+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본 연구는 은퇴준비의 영역을 여가 및 취미활동, 일 및 사회활동, 사회관계, 주거환경, 마음의 안정, 재무, 건강 등 7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은퇴준비에 대한 사회초년생들의 인식과 역량, 그리고 실제로 은퇴준비를 하고 있는 수준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은퇴준비의 인식, 역량, 실태간 구조적 관계를 은퇴준비 영역별로 살펴보며, 은퇴준비 영역별 지각된 중요성이 은퇴준비 역량과 실태의 관계를 매개하여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한 지 5년 이내로 경제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정기적인 월 소득이 있는 20 ~ 30대인 사회초년생 54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초년생의 특성, 은퇴준비와 은퇴준비 영역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수준은 어떠한지, 은퇴준비에 필요한 역량의 수준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 현황을 은퇴준비 인식, 역량, 실태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은퇴준비를 향후 5년 이내로 할 것이라고 연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30대 이후로 은퇴준비를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가지의 은퇴준비 영역에 대해 사회관계 영역을 제외한 6가지 영역에서 9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모든 은퇴준비 영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은퇴준비 영역별로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응답에서는 건강(9.01), 재무(8.85), 주거환경(8.57) 등 재무적인 은퇴준비와 관련이 깊은 영역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였으며 편차가 낮게 나타났다. 은퇴준비에 필요한 역량의 수준은 지식(71.3), 기능(54.2), 태도(52.8) 순이었으며, 특히 은퇴자금 마련 및 계산 등 재무적 영역의 은퇴준비와 관련된 문항에서 정답률 혹은 평균이 낮아, 앞서 재무적 영역의 은퇴준비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이 높음에도 실질적인 역량 수준은 상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은퇴

준비 영역별 실태의 경우 건강(3.93)과 재무적 영역(3.76)에서 은퇴준비를 실제로 하고 있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영역에 대해 추가로 살펴본 결과 은퇴소득원 마련 및 건강보험 가입 등의 현황이 선행연구에서 권장하는 수준이나 중장년층 및 전세대의 실태와 비교하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환경 영역의 경우 은퇴준비를 하고 있는 평균적인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3.21) 다른 영역에 비해 편차도 가장 커 필요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에 비해 사회초년생 간 실제 준비에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월평균 소득 등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라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 인식, 역량, 실태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은 남성보다 여가 및 취미활동과 사회관계 영역을 제외하고 은퇴준비 영역별로 더 중요하게 인식하며 은퇴준비 지식의 역량은 더 높았으나, 이미 은퇴준비를 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고 은퇴준비 기능의 역량과 일 및 사회활동, 주거환경, 마음의 안정 영역의 은퇴준비에 있어 실제로 은퇴준비를 하고 있는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재무 영역의 중요성 인식과 은퇴준비를 실제로 하고 있는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관계 영역의 은퇴준비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여가 및 취미활동과 마음의 안정 영역을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은퇴준비 태도의 역량과 마음의 안정, 재무, 건강의 영역에서 실제로 은퇴준비를 하고 있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라 은퇴준비 인식, 역량, 실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성별, 학력, 소득의 경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은 높은 반면 다른 비교집단에 비해 은퇴준비 역량 중 기능과 은퇴준비를 실제로 하고 있는 수준이 낮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셋째, 응답자의 은퇴준비 영역별 실태와 은퇴준비 역량 및 인식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은퇴준비 영역을 기준으로 일 및 사회활동, 사회관계, 재무 영역을 묶은 사회경제적 측면, 여가 및 취미활동, 마음의 안정, 건강 영역을 묶은 넓은 의미의 건강 측면, 그리고 주거환경

측면의 총 3가지로 구분되었다. 일 및 사회활동, 사회관계, 재무 영역으로 묶은 사회경제적 측면의 은퇴준비 영역은 은퇴준비 지식의 역량이 직접 은퇴준비 실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지각된 중요성에는 영향을 미쳤으며, 은퇴준비 기능의 역량이 영역별 지각된 중요성을 통해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및 취미활동, 마음의 안정, 건강 영역으로 묶은 넓은 의미의 건강 측면의 은퇴준비 영역은 은퇴준비 기능의 역량과 지각된 중요성이 은퇴준비 실태에 영향을 미쳤으나 지각된 중요성을 통해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주거환경 영역은 유일하게 지각된 중요성이 은퇴준비로 이어지지 못하였으나, 은퇴준비 지식과 기능의 역량이 지각된 중요성에, 은퇴준비 태도와 기능의 역량이 실태에 영향을 미쳤다. 추가로 본 조사에 응답한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게 인식한 재무와 건강 영역은 은퇴준비 지식이 직접 은퇴준비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지각된 중요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퇴준비 역량을 기준으로 볼 때, 은퇴준비 지식은 지각된 중요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은퇴준비 기능은 은퇴준비 실태에 영향을 미쳤으며 은퇴준비 태도는 영역별로 상이한 영향을 보였다. 이를 토대로 은퇴준비 영역별로 은퇴준비의 현황과 인식 및 역량과의 관계가 상이하였으며, 은퇴준비 역량에 따라서 은퇴준비 영역별 지각된 중요성과 실제 은퇴준비 수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각된 중요성이 미치는 영향 또한 상이하게 나타났다.

제 2 절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초년생은 은퇴준비 자체의 필요성과 은퇴준비 영역별 필요성 모두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 은퇴를 시급하게 준비하고 있지는 않으며 최대한 가까운 30대로 미루었다. 한편 은퇴준비 영역별 필요성과 달리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는 영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 선행연구에서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은퇴준비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선정한 결과와 일맥상통하였다. 이에 은퇴준비 영역별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 은퇴준비 역량 및 영역별 은퇴준비 실태와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은퇴준비 영역별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하였으나 대체로 지각된 중요성이 실제 은퇴준비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재무적 은퇴준비와 관련이 깊은 주거환경, 건강, 재무 영역에 대한 사회초년생의 인식이 높았으며, 그중 주거환경을 제외하고 건강과 재무적 영역의 은퇴준비를 실제로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주거환경의 경우 재무적 준비와도 관련이 깊은 영역이라 볼 수 있어 사회초년생들이 재무적 영역과 관련이 깊은 은퇴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도 고취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재무적 준비와 관련이 깊은 은퇴준비 역량의 수준은 낮게 나타나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중요시한 건강과 재무 영역에 대한 추가적인 은퇴준비 실태를 살펴본 결과, 선행연구에서 권장하는 수준이나 중장년층 및 전세대의 실태와 비교하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환경의 은퇴준비는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은 높으나 실제 준비하는 수준은 가장 낮으며 편차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퇴준비의 7가지 영역 중 유일하게 해당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각된 중요성의 인식이 실제 은퇴준비로 이어지지 못해, 사회초년생이 주거환경의 은퇴준비를 하는데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추가로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라 사회초년생의 인식, 역량, 실태에 차이가 있는지 살

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별, 학력, 소득의 경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과 은퇴준비 지식 및 태도의 역량이 실제로 은퇴준비를 하는 수준 및 은퇴준비 기능의 역량과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인식과 실제 은퇴준비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초년생에게 종합적인 은퇴준비의 영역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지각된 중요성과 인식이 높음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실제 은퇴준비로 이어지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다른 영역과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은퇴준비의 역량, 영역별 지각된 중요성과 실태간의 구조적 관계가 은퇴준비의 영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그중 일 및 사회활동, 사회관계, 재무 영역의 사회경제적 측면, 여가 및 취미활동, 마음의 안정, 건강 영역의 넓은 의미의 건강 측면, 그리고 주거환경 측면으로 구분되었다. 따라서 사회초년생에게 은퇴준비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7가지의 은퇴준비 영역별로 각기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모든 은퇴준비 영역에서 은퇴준비 기능의 역량이 실태에 영향을 미쳤으나 사회경제적 측면의 영역만이 영역별 은퇴준비 기능과 실태간에 지각된 중요성의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사회초년생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게 인식한 재무와 건강 영역은 은퇴준비 지식의 역량과 영역별 실태의 관계에서 지각된 중요성의 간접효과가 추가로 나타났다. 따라서 은퇴준비 기능의 역량이 실제 은퇴준비로 이어지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사회초년생들이 중요시하는 재무와 건강 영역은 은퇴준비 지식의 역량이 직접 은퇴준비로 이어지지는 못해도 지각된 중요성을 높여 은퇴준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특히 사회초년생이 현실적으로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큰 주거환경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지각된 중요성이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를 돕기 위해서는 영역별로 상이한 접근이 필요하며, 은퇴준비 지식, 태도, 기능의 역량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각 영역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의 정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최근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로 재무적 영역에 국한하지 않는 종합적인 영역에 대한 은퇴준비 역량, 인식, 실태간의 관계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에 있어 다양한 영역과 역량, 인식에 대한 고려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사회초년생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포함한 사회초년생의 특성에 따른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 역량, 인식, 실태에서 대부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 혼인여부, 주거형태 등 은퇴준비에 중요하게 작용할 특성을 포함한다면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에 대해 보다 풍부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은퇴준비 역량의 현황과 이를 기반으로 영역별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검증할 때, 김정현(2011) 외의 노후설계 재무관리역량의 척도 중 사회초년생에게 부적절한 몇 문항을 제외하여 참고하였다. 이때 재무적 역량과 관련이 깊어 은퇴준비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역량을 포괄하지 못하였으며 척도 수 자체가 적어 안정적인 신뢰도를 얻지 못하였다. 한편 그럼에도 비재무적 영역의 은퇴준비 인식과 실태에도 영향관계를 보여, 은퇴준비 영역간 전이효과(spillover effect)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전이효과(spillover effect)”란 ‘한 분야에서 발생한 행동이 다른 분야로 퍼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지칭하는데, 은퇴준비 각 영역간 은퇴준비의 성격은 다르지만 영역간 상호영향이 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은퇴준비 지식의 척도 중 “은퇴 후 생활비는 현재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문항의 경우 사회초년생의 입장에서는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은퇴준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정답률이 낮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김정현(2011)의 연구를 기반으로 본 문항은 은퇴소득원 마련의 기본적인 원칙

으로서 현재 수준을 기준으로 은퇴소득원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지식을 아는지 측정하는 문항이나, 응답자인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정답률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은퇴준비 태도의 역량은 인식에, 기능의 역량은 은퇴준비 실태에 높은 상관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은퇴준비 영역별 인식 및 실태와는 구분이 되면서 사회초년생에게 은퇴준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량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은퇴준비 역량의 척도를 정교화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은퇴준비 역량을 은퇴준비 인식과 실태보다 선행하는 요인으로 선정하였지만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이 은퇴준비 역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향후 연구에서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은퇴준비 실태의 경우 은퇴준비 영역별 단일한 문항으로 한정하였다. 이에 은퇴준비 역량과 영역별 지각된 중요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피는 과정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응답자별 은퇴준비 영역별 실태에 응한 행태가 다를 수 있음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주거환경 영역의 은퇴준비를 하고 있는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사회초년생일지라도, 비교적 적은 금액의 청약저축만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 이미 내집 마련을 한 경우 등이 같이 묶였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은퇴준비 영역별 실태를 심층적이고 다양한 척도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초년생이 특히 필요하고 중요하게 인식한 재무와 건강 영역에 한하여 추가적인 실태를 살펴보았으나 현황을 살펴보는데 그쳤으며,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모든 은퇴준비 영역의 실태를 측정함에 있어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척도를 구성하며 역량, 인식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다면, 은퇴준비에 대한 사회초년생들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사회초년생들에게 더욱 효과 있는 은퇴준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김석건, 김광호 (2021), “노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 지지의 매개효과와 성별 차이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4), 565-575.

김시월, 이형규 (2018), “사회초년생, 대학생의 금융이해력과 신용교육의 필요성”, 금융소비자연구, 8(3), 5-38.

김아름, 양혜경 (2016), “사회초년생의 금융이해력과 재무스트레스가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Financial Planning Review, 9(4), 79-105.

김윤정 (2010), “노인의 여가 유형별 참여 정도가 여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현 (2011),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생활과학 박사학위논문.

김정현, 박주영 (2013), “우리나라 소비자의 은퇴설계실행능력과 영향요인”, 한국생활과학회지, 22(1), 117-129.

류지원 (2020),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성인의 금융이해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학위논문.

류재흥 (2017), “노후대비를 위한 노후준비 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논문.

박다정 (2015),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에 대한 인식과 노후준비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 석사학위논문.

박은산 (2015), “은퇴한 중 고령자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박창균, 연태훈, 허석균 (2016), “가계의 금융지식 및 금융행태에 관한 실증연구: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금융지식연구, 14(3), 55-81.

배문조, 전귀연 (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7), 89-102.

배재덕 (2014), “중년층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과 은퇴태도가 은퇴준비에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복지실천학회지, 5(2), 102-126.

백은영 (2009),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가계 재무구조와 저축성향 분석”, 소비자학연구, 20(2), 1-25.

양덕순 (2022), “금융이해력이 소비자의 노후 재무대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8(2), 83-103.

이상주 (2021), “중장년층 은퇴준비역량과 성공적 노화 예측간의 구조적 관계”, 여가복지경영연구, 2(2), 107-130.

이종찬 (2020), “중소기업 사무직 중고령자의 은퇴준비도 검사도구 개발”,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학 박사학위논문.

이진아, 강형구, 김석환 (2022), “사회초년생의 금융적 특성 분석 및 개인 재무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언”, Financial Planning Review, 15(3), 1-27.

장몽교, 이승신 (2016),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에 관한 연구: 20·30대 소비자 대상으로”, 가정과삶의질연구, 34(5), 53-68.

전연욱 (2016), “노후준비 중요성과 노후준비 정도에 대한 중장년층의 인식”, 경남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정운영, 백은영 (2009), “은퇴에 대한 인식, 은퇴태도와 은퇴준비 행동의 인과관계분석”, 사회보장연구, 25(2), 115-139.

차경욱, 박미연, 김연주 (2008), “20, 30대 임금근로자의 은퇴재무설계에 관한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26(1), 149-164.

최홍철 (2014), “가구유형을 고려한 생애주기와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7(3), 93-125.

최홍철, 김소연, 나종연, 최현자 (2016), “2030대 1인가구의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연구: 다인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19(2), 89-110.

최현자, 주소현, 김민정, 김정현, 조혜진 (2012), “우리나라 가계의 은퇴준비종합지수 개발 연구”, 조사연구, 13(3), 63-87.

한겨레, 김교성 (2019), “개인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유형과 성별 차이”, 사회보장연구, 35(1), 151-179.

한지형, 최현자 (2015), “누가 행복한 은퇴생활을 하는가?”, Financial Planning Review, 8(4), 95-123.

홍수아 (2013), “성격유형 및 위험수용성향에 따른 은퇴준비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 석사학위논문.

황혜정, 임효남, 조지용, 조찬주, 김광환 (2022), “노인 일자리 정책과 노인 일자리 인식에 관한 융합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20(5), 695-702.

JIN YUNWEN (2021), “베이징의 30-40대의 근로자의 은퇴준비태도와 은퇴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조절초점과 성격유형의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 석사학위논문.

국외문헌

Bongini & Cucinelli (2019), “University students and retirement planning: never too early”, *International Journal of Bank Marketing,* 37(3), 775-797.

Cho, Jinho (2019), “Subjective Financial Literacy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Korea Baby Boomers’ Retirement Preparation”*, Financial Planning Review,* 12(2), 35-59.

Duska (2016), “Ethics and the Nonfinancial Side of Retirement”, *Journal of Financial Service Professionals,* 70(1), 23-26.

Erp, Vermeer and Vuuren (2014), “Non-financial Determinants of Retirement: A Literature Review”, *De Economist,* 162, 167-191.

Gallego-Losada, Montero-Navarro, Rodríguez-Sánchez and González-Torres (2022), “Retirement planning and financial literacy, at the crossroads*”, Finance Research Letters,* 44, 1-10.

Gupta & Wong (2020), “How “dependent” are we? A spatiotemporal analysis of the young and the older adult populations in the US*”,*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40, 1221-1252.

Hira, Whitney, and Loibl (2009), "Determinants of retirement planning behaviour and differences by ag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33(3), 293-301.

Murari, Krishna, Shukla, and Adhikari (2021), "Do psychological social and financial perceptions of post-retirement life and demography influence the retirement planning behaviour?",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48(11), 1545-1566.

Safari, Njoka, and Munkwa (2021), "Financial literacy and personal retirement planning: a socioeconomic approach", *Journal of Business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1(2), 121-134.

Scharn, Sewdas, Boot, Huisman, Lindeboom, and Beek (2018), "Domains and determinants of retirement timing: A systematic review of longitudinal studies", *BMC Public Health,* 18, 1-14.

Schneider (2010), "The Increasing Financial Dependency of Young People on their Parents", *Journal of Youth Studies,* 3(1), 5-20.

Wallendorf (2001), "Literally Literacy",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7(4): 505-511.

단행본

박광수, 양재영, 주소현 (2021), “개인재무설계 제5판” 시대가치.

James (2019), “Biological Psychology”, *Cengage Learning* 13Ed.

온라인 참고자료

김명중 (2020), “일본 정부의 점진적 은퇴 및 정년연장 대책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국제노동브리프, 2020(1), 7-26.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51391&issus=O&pp=20&datecount=&pg=

금융감독원 (2021), “2020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12096

금융감독원 (2021), “사회초년생 및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18409&topic=

금융위원회 (2013),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 개인연금정책협의회.
https://www.fsc.go.kr/po010101/70942?srchCtgry=1&curPage=115&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1년 국민여가활동조사”.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854&pDataCD=0406000000&pType=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1), “MZ세대의 은퇴인식과 퇴직연금 운용 트렌드”, 미래에셋투자와연금리포트 53.
https://webzine.securities.miraeasset.com/bbs/board.php?bo_table=MD11&wr_id=269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2023), “저출산·고령화에 연금 소진 빨라져…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003

보건복지부 (2016), “제 1차(2016~2020)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4435&page=1

보건복지부 (2021),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9&CONT_SEQ=363058

보험연구원 (2021), “2020/2021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MZ세대의 은퇴저축”.
https://www.kiri.or.kr/report/reportList.do?catId=4&docId=107539

신한은행 (2022), “디지로그 시대 Smart Old의 스마트한 은퇴생활”, 신한 미래설계 보고서 2022.
https://plan4u.shinhan.com/common/html/report.php

신한은행 (2022),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https://consumerinsight.co.kr/voc_view.aspx?no=3312&id=pr18_list&PageNo=1&schFlag=0

전국투자교육협의회(2023), “사회초년생의 경제노후대책 세우기”.
http://www.kcie.or.kr/mobile/guide/series/3/21/web_view?series_idx=21&content_idx=308

통계청 (2020), “2020년 사회조사 결과”,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7201

통계청 (2023), “인구동향조사”, 합계출산율.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pop=1&idxCd=506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고령화(高齡化)”.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7748

한국은행 (2013), “우리나라의 금융이해력 측정 결과”.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76306&menuNo=200690

KB금융그룹 (2022), “2022년 한국 1인가구 보고서”.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70685

OECD/INFE (2016), “International Survey of Adult Financial Literacy Competencies”.
https://www.oecd.org/finance/financial-education/oecd-infe-survey-adult-financial-literacy-competencies.htm

OECD (2018), “OECD/INFE toolkit for measuring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inclusion”.
https://www.oecd.org/finance/measuringfinancialliteracy.htm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사회초년생의 은퇴준비 연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익명으로 통계처리 되어 오직 연구자료로서만 사용될 것으로, 안심하시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답변은 저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서 매우 소중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소비자재무연구실
석사과정 조 소 현

[Section 1 : Screening Questions]

A1. 귀하는 취업한 지 5년 이내로 정기적인 월 소득이 있는 20대 혹은 30대에 해당하십니까?

① 예 → B1로.
② 아니요 → 설문지 작성 중단.

[Section 2 : 인구통계적 정보 및 은퇴에 관한 질문]

B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B2. 귀하의 현재 **연령**은 몇 세 입니까? (만_____세)

B3. 귀하의 현재 **직업**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전문, 경영, 관리직 ② 사무직 ③ 노동, 생산, 판매, 서비스직
④ 자영업 ⑤ 기타 ( )

B4. 귀하의 최종 **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고졸이하 ②대학교 재학 및 졸업(중퇴 포함)
③대학원 재학 및 졸업(중퇴 및 수료 포함)

B5. 귀하의 **월 평균 수입**은 얼마입니까? (약_____만원)

B6. 귀하의 **예상 은퇴시점**은 몇 세 입니까? (_____세)

[Section 3 : 은퇴준비 인식에 관한 질문]

다음은 귀하의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귀하의 평소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다음은 귀하의 은퇴준비 필요성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C1. 귀하는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 C2로.
② 아니요 → 설문지 작성 중단.

C2. 귀하는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준비가 언제부터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이미 하고 있다. ② 향후 5년 이내 ③ 향후 10년 이내
④ 향후 10년 이후 → C2-1로.

C2-1.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몇 살 정도부터 준비를 하려고 하십니까?

( )세

Ⅱ. **다음은 귀하의 은퇴준비 영역별 필요성 인식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C3. 은퇴 후 생활에 있어서 여가 및 취미활동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 C3-1로.

② 아니요 → C4로.

C3-1. 그렇다면 여가 및 취미활동에 대한 은퇴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이미 하고 있다. ② 향후 5년 이내 ③ 향후 10년 이내

④ 향후 10년 이후 → C3-2로.

C3-2.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몇 살 정도부터 하려고 하십니까? ( )세

C4. 은퇴 후 생활에 있어서 일 및 사회활동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 C4-1로.

② 아니요 → C5로.

C4-1. 그렇다면 일 및 사회활동에 대한 은퇴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이미 하고 있다. ② 향후 5년 이내 ③ 향후 10년 이내

④ 향후 10년 이후 → C4-2로.

C4-2.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몇 살 정도부터 하려고 하십니까? ( )세

C5. 은퇴 후 생활에 있어서 가족 및 친구 등 사회관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 C5-1로.

② 아니요 → C6으로.

C5-1. 그렇다면 가족 및 친구 등 사회관계에 대한 은퇴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이미 하고 있다. ② 향후 5년 이내 ③ 향후 10년 이내
④ 향후 10년 이후 → C5-2로.

C5-2.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몇 살 정도부터 하려고 하십니까? ( )세

C6. 은퇴 후 생활에 있어서 주거환경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 C6-1로.
② 아니요 → C7로.

C6-1. 그렇다면 주거환경에 대한 은퇴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이미 하고 있다. ② 향후 5년 이내 ③ 향후 10년 이내
④ 향후 10년 이후 → C6-2로.

C6-2.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몇 살 정도부터 하려고 하십니까? ( )세

C7. 은퇴 후 생활에 있어서 마음의 안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 C7-1로.
② 아니요 → C8로.

C7-1. 그렇다면 마음의 안정에 대한 은퇴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이미 하고 있다. ② 향후 5년 이내 ③ 향후 10년 이내
④ 향후 10년 이후 → C7-2로.

C7-2.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몇 살 정도부터 하려고 하십니까? ( )세

C8. 은퇴 후 생활에 있어서 재무상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 C8-1로.

② 아니요 → C9로.

C8-1. 그렇다면 재무적 은퇴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이미 하고 있다. ② 향후 5년 이내 ③ 향후 10년 이내

④ 향후 10년 이후 → C8-2로.

C8-2.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몇 살 정도부터 하려고 하십니까? ( )세

C9. 은퇴 후 생활에 있어서 건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 C9-1로.

② 아니요 → C10으로.

C9-1. 그렇다면 건강에 대한 은퇴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이미 하고 있다. ② 향후 5년 이내 ③ 향후 10년 이내

④ 향후 10년 이후 → C9-2로

C9-2.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몇 살 정도부터 하려고 하십니까? ( )세

Ⅲ. 다음은 귀하의 은퇴준비 영역별 중요성 인식에 관한 문항입니다.

C10. 은퇴 후 생활에서 각 은퇴준비 영역별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1~10점 사이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최고10점)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여가 및 취미활동	1	2	3	4	5	6	7	8	9	10
일 및 사회활동	1	2	3	4	5	6	7	8	9	10
가족 및 친구 등 사회관계	1	2	3	4	5	6	7	8	9	10
주거환경	1	2	3	4	5	6	7	8	9	10
마음의 안정	1	2	3	4	5	6	7	8	9	10
재무상태	1	2	3	4	5	6	7	8	9	10
건강상태	1	2	3	4	5	6	7	8	9	10

Ⅳ. **다음은 귀하의 은퇴준비 영역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항입니다.**

C11. 다음의 은퇴준비 영역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가 및 취미활동 / 일 및 사회활동 / 가족 및 친구 등 사회관계 / 주거환경 / 마음의 안정 / 재무상태 / 건강상태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순위(　　) 7순위(　　)

[Section 4 : 은퇴준비 실태에 관한 질문]

D1. 다음은 귀하의 은퇴준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귀하의 평소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나는 은퇴 후 여가시간에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거나 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나는 은퇴 후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에 대해 준비를 하거나 생각을 하고 있다.					
나는 은퇴 후에도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는 은퇴 후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나는 은퇴 후 살 곳을 마련해 두었거나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					
나는 은퇴 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을 하고 있다.					
나는 은퇴 후의 삶을 편안하게 받아들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D2. 은퇴 후 적정 월 생활비(은퇴자금)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월 약_____만원)

D3. 공적 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D4. 개인연금에 가입하셨습니까?
① 예 → D4-1로.
② 아니요 → D5로.

D 4-1. 가입하신 개인연금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② 연금저축-연금저축펀드
③ 연금저축-연금저축신탁 ④ 연금보험-일반연금보험
⑤ 연금보험-변액연금보험 ⑥ 연금보험-자산연계형 연금보험

D 4-2. 개인연금으로 매달 얼마를 저축하십니까? (월 약_____만원)

D5. 직장에서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① 예 → D5-1로.
② 아니요 → D6으로.

D5-1. 귀하의 직장에서 가입되어 있는 퇴직급여제도는 무엇입니까?
① 확정급여형(DB) ② 확정기여형(DC) ③ 개인형 퇴직연금(IRP)
④ 잘 모르겠다.

D6. 위의 연금 이외에 은퇴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저축(투자)하고 계십니까?

① 예 → D6-1로.

② 아니요 → D7로.

D6-1. 한달에 얼마나 저축(투자) 하십니까? (월 약_____만원)

D7. 은퇴기를 대비하여 건강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① 예 → D7-1로.

② 아니요 → E1로.

D7-1. 가입하고 계신 보험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질병보험 ② 통합보험(종합보험) ③ 실손의료보험

[Section 5 : 은퇴준비역량에 관한 질문]

E1. 다음의 질문에 대해 귀하의 평소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나는 아직은 은퇴기를 대비한 준비나 설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에 의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E2. 다음의 질문을 읽고 맞다고 생각하면 O에, 틀리다고 생각하면 X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O	X
전문가로부터 은퇴설계를 받아 두었다면, 시간이 지나도 포트폴리오나 목표액수 등을 되도록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은퇴기 소득원은 예상되는 각종 연금과 저축액 및 부동산 수익 등을 모두 더하여 구한다.		
은퇴 후 생활비는 현재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이 안정적이므로 개인적으로 연금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E3. 다음의 질문에 대해 귀하의 평소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나는 나의 은퇴준비에 관련된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실행할 수 있다.					
나는 은퇴대비자금으로, 저축이나 부동산 뿐 아니라 각종 연금 형태의 재원이 다양하게 마련하였거나 마련할 수 있다.					
나는 나의 은퇴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할 수 있다.					
나는 번 돈에서 은퇴대비를 위한 저축을 일단 먼저 하고 나머지로 생활을 하려고 한다.					

Abstract

A Study on the Retirement Preparation for Beginners in Society

CHO Sohyeon
Dept. of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lthough the need for retirement is accelerating due to rapid sociocultural changes, demographic changes such as falling birth rates and aging, pension reform and job insecurity, it is difficult to think urgently about retirement. Research is also needed to prepare for retirement of the beginners in society, who have started economic independence as they start social life and earn regular financial income, but existing studies on retirement preparation have been limited to the financial sector. Accordingly, this study comprehensively organized the area of retirement preparation to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retirement preparation of social beginners by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of retirement preparation and the impact of retirement preparation recognition and competence.

To this end, this study comprehensively organized retirement preparation areas such as leisure and hobby activities, work and social activities, social relationships, residential environment, mental stability, finance, and health.

The research problems set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Study Question 1]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retirement preparation perception (necessity and importance), competency (knowledge, attitude, behavior), and area of retirement preparation. [Study Question 2] confirmed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retirement preparation perception, competency, and status. [Study Question 3] attempted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retirement preparation competencies, perceptions, and actual status of beginners in society by retirement preparation area. For this study,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540 beginners in society in their 20s and 30s with monthly income within 5 years of employment, and the main results derived based on this are as follows.

First, beginners in society most often postponed retirement preparations within the next five years, and generally delayed retirement preparations after their 30s. Overall, the need for all retirement preparation areas was recognized, but in response to how important each retirement preparation area was, the importance of areas closely related to financial retirement preparation such as health, finance, and residential environment was high and the deviation was low. The level of competency required for retirement preparation was in the order of knowledge, behavior, and attitude, and in the case of the actual status of retirement preparation area, the level of retirement preparation was found to be high in the health and financial area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e average level of retirement preparation was the lowest, and the deviation was the largest compared to other areas, so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large difference in actual retirement preparation between beginners of society.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gender, age, job, education, average monthly income, and the time of expected retirement, gender, education, and income were considered important.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pondents' retirement preparation area and the perceived importance wa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work and social activities, social relations, finance / leisure and hobby activities, mental stability, health /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n addition, based on retirement preparation capabilities, retirement preparation knowledg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perceived importance, retirement preparation behavior had a significant impact on retirement preparation, and retirement preparation attitude had a different impact by area. Based on th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rrent status, perception, and competency of retirement preparation was different, and the perceived importance of each retirement preparation area, the actual level of retirement preparation, and the impact of perceived importance were also different.

The conclusions draw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en examin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need and importance of each retirement preparation area, retirement preparation competency, and retirement preparation status by area, it was confirmed that the perceived importance led to actual retirement preparation. Second, not only should beginners in society be aware of the area of retirement preparation. Third, the perceived importance in all areas affected retirement preparation, especially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rea, where it was difficult for beginners in society to prepare in reality. Therefore, different approaches are needed for each area to help beginners prepare for retirement, and the degree of recognition that each area considers important should be increas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retirement preparation

knowledge, attitude, and functional competences.

On the other hand, since this study did not reflect reality on the characteristics of beginners in society, more abundant research results can be derived on the retirement preparation of beginners in society if these areas are supplemented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re considered. In addition, in this study, the scale of retirement preparation competency was deeply related to financial competency, so it did not cover various aspects of retirement preparation, and the number of scales itself was small, so stable reliability was not obtained. Nevertheless, it also showed an impact on the perception and status of retirement preparation in non-financial areas, confirming the possibility of a spillover effect between retirement preparation areas. In addition, since the status of retirement preparation presented in this study was limited to a single question for each retirement preparation area,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study by organizing the status of each retirement preparation area in depth and various scales.

keywords : Retirement Preparation, Beginners in Society, Recognition, Competency, Behaviors
Student Number **: 2021-20747**